

# 성도의 빛 <sup>12</sup><sub>1986</sub>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 성도의 벗

1986년 12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문 :

조셉 비 워스린,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패러모어, 휴 더블류 피녹크

통 권 : 제248호, 제22권 제8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6년 12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계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29KO

PRINTED IN KOREA 12/86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관장단 메시지

자신이라는 선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6. 그가 나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존 프레이저



8. 사랑의 성탄절 선물

마릴로우 디 파데랑가 이도스

9. 목자의 들에서 배운 교훈

비키 에이치 랜돌

10. “한 마음으로”

마리안 마리어즈 슴웨이

12. 거룩한 십일조의 범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17. 예수님 생각하오니

토드 에이 브리쉬

34. 물문경에 있는

성탄절 이야기

20. 사랑은 생명임

바바라 비 스미스

패트 그래햄

24. 퀘벡의 꿀과 아름다운 하머니

케들린 루벡

36. 크리스마스 오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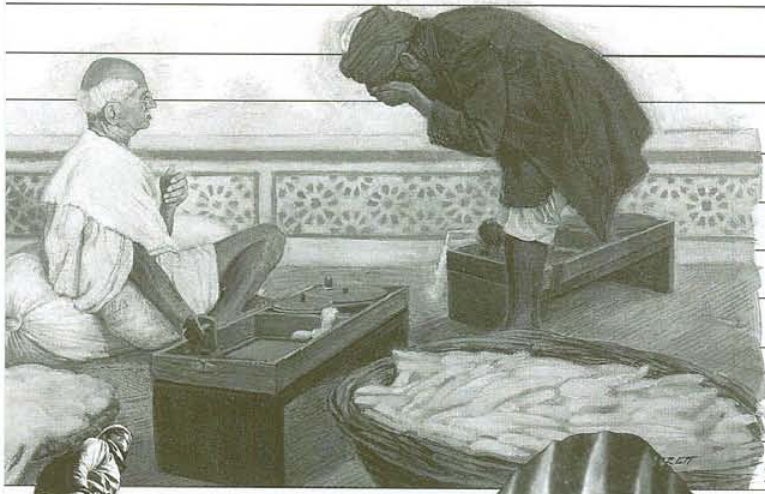
38. 성탄절은 성탄절이

세리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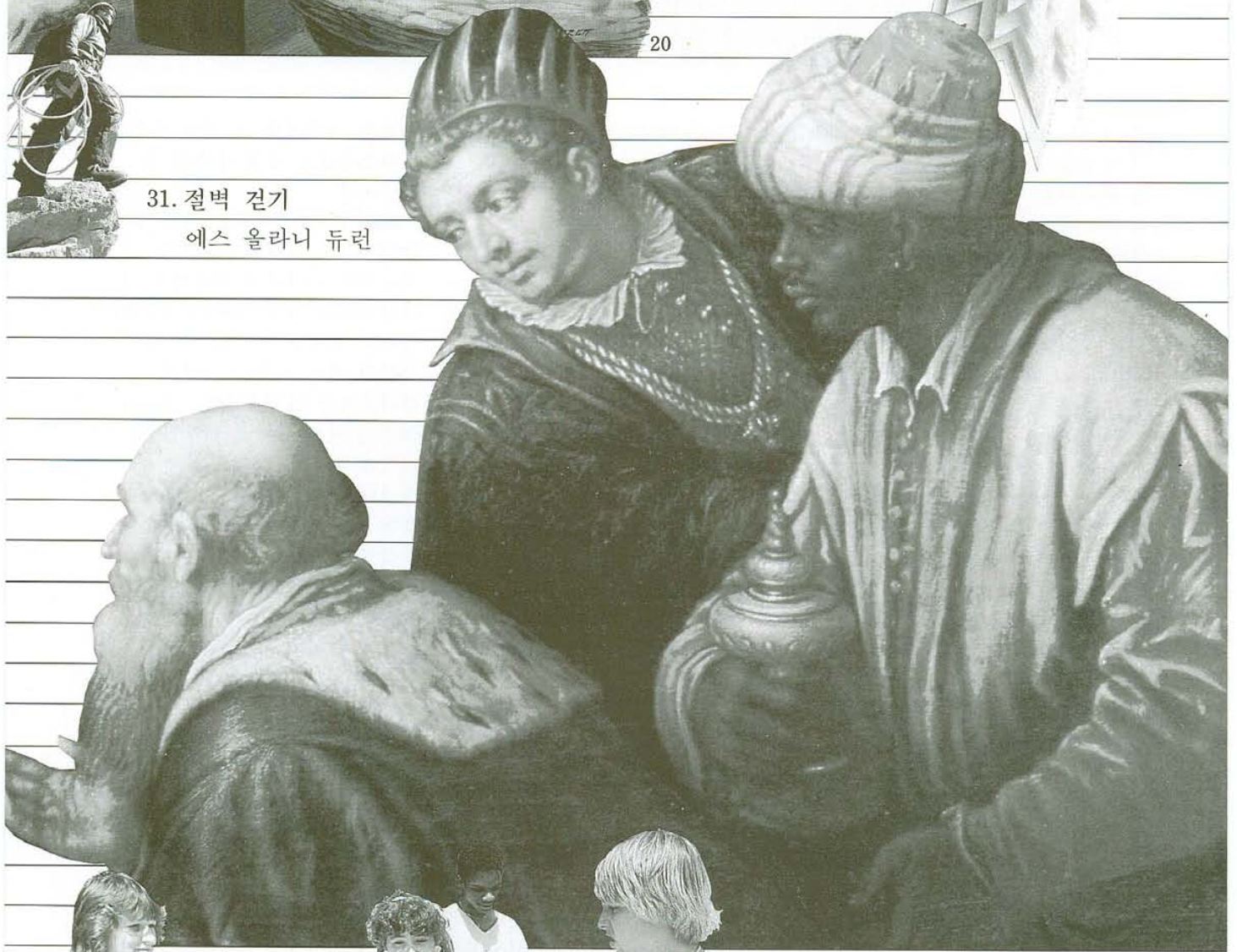
28. 영혼의 가치가 심히 큼

폴 비 서굿





31. 절벽 걷기  
에스 올라니 듀런



## 대관장단 메시지

# 자신이라는 선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자신의 아들을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주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노래하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그 아들의 비할 데 없는 선물에 대하여 경건하게 명상하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가장 훌륭하게 경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말씀할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근원이셨습니다. 그들은 왕을 꾸짖을 때 백성을 징계할 때 또 선견자로서 약속된 메시야가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계시의 권세로 선포하며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이사야 11:2)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필멸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니파이가 시현에서 본 모든 처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가 그에게 육신을 주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갓 태어나는 왕께 드리는 선물

그는 여관에 방이 없었으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시현으로 본 니파이에게 천사가 잘 물어 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느냐?(니파이일서 11:16) 나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유대인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 사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셨을 때 그의 영광에 대하여 노래한 천사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는 새로운 별이 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 위하여 먼 길을 여행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갓 태어나신 왕에게 선물을 바치면서 경이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 어린 손을 만져 보았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비록 누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그렇게 별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중 앞에서 성역을 베푸신 그 기적에 찬 3년은 그 이후에 세세년년 모든 인류를 풍요롭게 해줄 가르침을 훈계와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계시의 권세로 말한 것입니다.

요단강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고 선언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로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그분은 지상의 모든 요소와 생명의 모든 기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에서 시작하여 계속해서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산 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장미의 마돈나(16세기-르네상스) 비블리오테카 암브로시아나 밀란

그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박해받는 사람들과 진실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 : 28~30)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성도의 빛/1986년 12월호

자신의 가르침의 구원하는 권세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 : 13~14).

“나는 부활이요”

그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자신의 영원한 권세를 선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 : 25~26)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약의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필멸의 존재가 되시고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성역은 가르치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들어올리는 성역이었으며 대속과 구속과 부활을 가져온 위대하고 궁극적인 회생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 봉사와 자기 부인의 성역이었습니다.



목자의 경배, 지오지은 작(1510년경) 국립미술관, 와싱턴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따른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봉사의 생애를 닮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자기 소원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 의하여 헤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아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마치 전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한다면 그 생명을 낭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훌륭하고 신성한 신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자주 밝히셨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

선교사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 사랑의 수고

성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 더더욱 인류의 구세주의 위대하신 대리 사업에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봉사하면서 그들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 이외에는 그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기의 경배, 자코포 바사노 작(16세기-르네상스) 피나코데카, 산세폴크로

모릅니다.

모든 시기 중에서 우리가 자신을 주지 않고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좀더 관대하게 손길을 펼칩시다. 장난감이나 기타 물건을 건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적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적선과 함께 자신을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원리에 대하여 너무나 훌륭한 모범이셨던 김볼 대관장은 언젠가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벗/1986년 12월호

“나는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닳게 되어 있는 구두와 같다고 느낍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헌납의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성탄절은 우리가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을 경축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경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2.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로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그분은 지상의 모든 요소와 생명의 모든 기능을 알고 계셨습니다.

3.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 의하여 헤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아려져 있습니다.

4. 모든 시기 중에서 우리가 자신을 주지 않고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 그가 나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존 프레이저

나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칼빈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한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도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만물의 회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마침내 그 회복된 진리를 찾기 위하여 성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실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 회복된 진리를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1956년 어느 날 밤 길퉁으로부터 멜버른까지 폭우 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두 젊은이를 태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선교부 숙소로 데리고 갔을 때 선교부장이 물문경을 한 권 주셨고 나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에 대하여 더 배우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가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 머리를 한 사람이 물 속에 허리를 잠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물문경을 들고 나에게 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며 주님이 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꿈 속에서 본 그 사람의 그림을 스캐치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다녔습니니다.

얼마 후 두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니다. 나는 그들이 물문경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들여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니다. 그들은 그 그림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그림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림을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꿈 이야기와 그 그림까지도 솔트레이크시티로 갔습니니다. 나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편지에서 자신의 간증과 침례를 받으라는 권고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가 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동안 그의 선교사 임기를 일주일간 연장하고 우리 집에서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나는 혹시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였으며 곧 그 선교사들과 접촉이 끊어졌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복음 연구를 계속했으며 1974년 늦은 어느 날 뉴 사우스 웨일즈의 울롱공에 있는 교회에 선교사들을 만나고 싶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세 번이나 나의 침례 날짜를 정하였으며 나는 그때마다 그것을 연기하였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침례탕에 물을 채워놓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번역사로서 훌륭한 자리를 얻게 되었을 때 나의 그 우유부단함은 끝났습니니다. 이 직책을 맡으면 매주 일요일에 캔버라에 여행해야 하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나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그 직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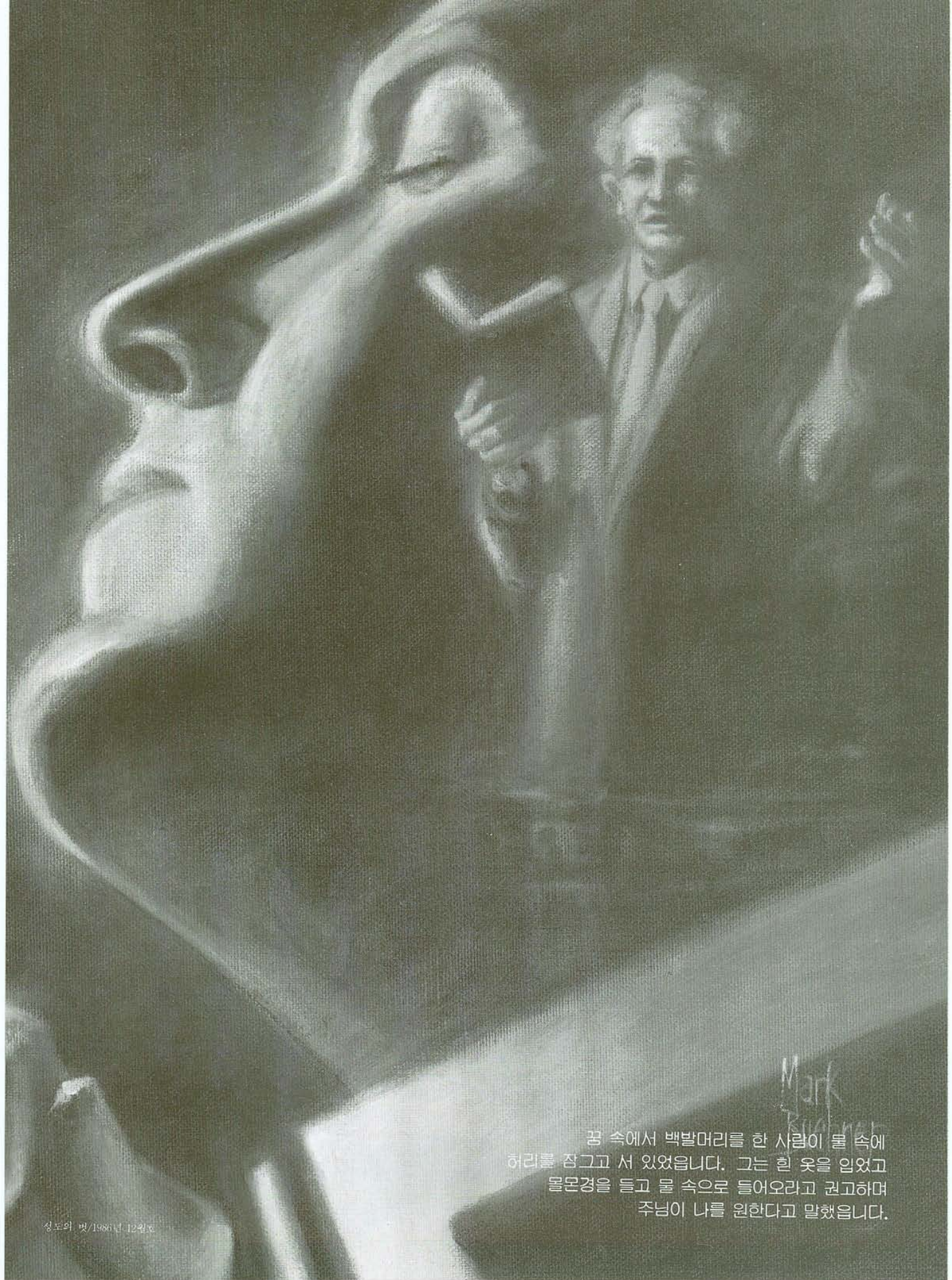
그 결정을 내린 지 얼마되지 않아서 나는 심장마비에 걸렸으며 그로 인하여 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침례받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에는 옛날 친구인 성직자들의 박해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뉴 웨일즈로 이민 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지는 어떤 칼빈 교회 감독 자리를 맡도록 권고받고 있었습니니다. 나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에 다시 일곱번째로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침례받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1975년 3월 15일 진리를 알고 나서도 그것에 관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미룬 다음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 복음을 나의 이웃에게 특히 헝가리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큰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소책자 열 네권과 물문경의 많은 부분을 헝가리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선교사로서 헝가리로 돌아가서 회복된 복음... 주님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주신 그 복음을 옛날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Mark  
Rymer

꿈 속에서 백발머리를 한 사람이 물 속에  
허리를 잠그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었고  
물문경을 들고 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며  
주님이 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랑의 성탄절 선물

마릴로우 디 파테랑가 이도스

성탄절이 거의 다 되었다. 나는 걸어다니느라고 지치고 그날 있었던 일로 실망하여 집에 돌아왔다. 내가 하와이 교회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온 지 삼 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직장은 집집마다 다니며 백과 사진을 파는 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 눈에서 피곤한 표정을 보고 머뭇거리며 “오늘 운이 좀 있었니?”라고 물으셨다.

“아뇨. 별로 요즈음에는 백과 사진이 성탄절 선물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나의 음성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 주려면 최소한 백과 사진 한 짝은 팔아야 했다. 나는 삼년 동안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날을 고대했다. 나는

이 순간을 염원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랐던 것은 가족에게 선물을 잔뜩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이제 성탄절까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나에게 돈이 없었다. 갑자기 사랑에 찬 두 손이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인 밀라였다. 밀라는 이렇게 속삭였다. “내 초콜렛은 걱정하지 마, 단 것은 나에게 이롭지도 않은걸 뭐”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저녁 식탁으로 데리고 갔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살 수 있도록 책을 많이 팔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한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널 요량으로 일어서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너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탄절 선물을 주고 있는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하셨다. “너는 하와이에 있어서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을 얻을 계획이었지. 그러나 우리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이야기해서 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도록 부탁했었지. 네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중요하단다. 우리에게 대한 너의 사랑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이 무렵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더 중요한 여러 가지 축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축복을 미루신단다. 이 성탄절에 너에게 멋진 구두를 한 켤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우리의 명절을 완전한 것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 구두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사랑이 많은 가족이 있었다. 나는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나은 직장을 얻을 훌륭한 전망을 안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염려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뿐 아니라 크루즈 부인께서 전화했는데 현찰을 내고 그의 자녀들에게 백과 사진 한 짝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밀라가 소리쳤다. “야. 신난다! 이제 오빠는 성탄절에 나에게 초콜렛을 한 상자 사 줄 수 있겠다.”

나는 웃음보다는 울음이 나왔다. 이 얼마나 멋진 성탄절을 기념하는 방법인가. 나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요새화된 헤로디온

# 목자의 들에서 배운 교훈

비키 에이치 랜들



목자의 들에서 본 베들레헴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어떤 베두인 가족의 텐트를 보았다. 그 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는 두세 어린이가 베들레헴 바깥의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 떼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일행의 이 주 동안의 이스라엘 체류가 끝나고 있었으며 우리는 간증 모임을 갖기 위하여 목자의 들로 나갔었다.

우리는 돌이 많은 언덕에 앉아서 한 방향으로 눈을 돌려 베들레헴을 볼 수 있었다. 방향을 돌려서 약간 왼쪽을 보면 헤로디온을 볼 수 있었으니 그곳은 요새화된 산으로서 한 때 헤롯 대왕이 풀장과 정원과 이백 개의 흰 대리석 계단이 있는 화려한 궁전을 지었던 곳이다. 우리는 그날 일찍 그곳을 방문했었다. 지금 그것을 보고 있으니 그것이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성공을 다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졌다. 또 한편 베들레헴 마을은 우리가

성도의 빛/1986년 12월호

성지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을 모두 다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쪽저쪽으로 베들레헴과 헤로디온을 번갈아 보았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물론 나는 구세주를 따르기 원한다. 그러나 나의 매일 매일의 결정과 행동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간증을 하는 동안에 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염려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 물질적인 소유가 영원히 지속되는 척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눅 2:15)라고 한 말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유대 언덕 너머로 태양이 지고 양 떼가 옆에 있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좀더 적게 염려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 열심히 찾겠다고 약속하면서 느꼈던 그 평화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자주 생각했다.

때때로 나는 지금도 그 옛날 밤에 먼 언덕에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현명하게 선택할 것을 마음 속으로 상기한다. 헤로디온은 폐허가 되어 있으나 베들레헴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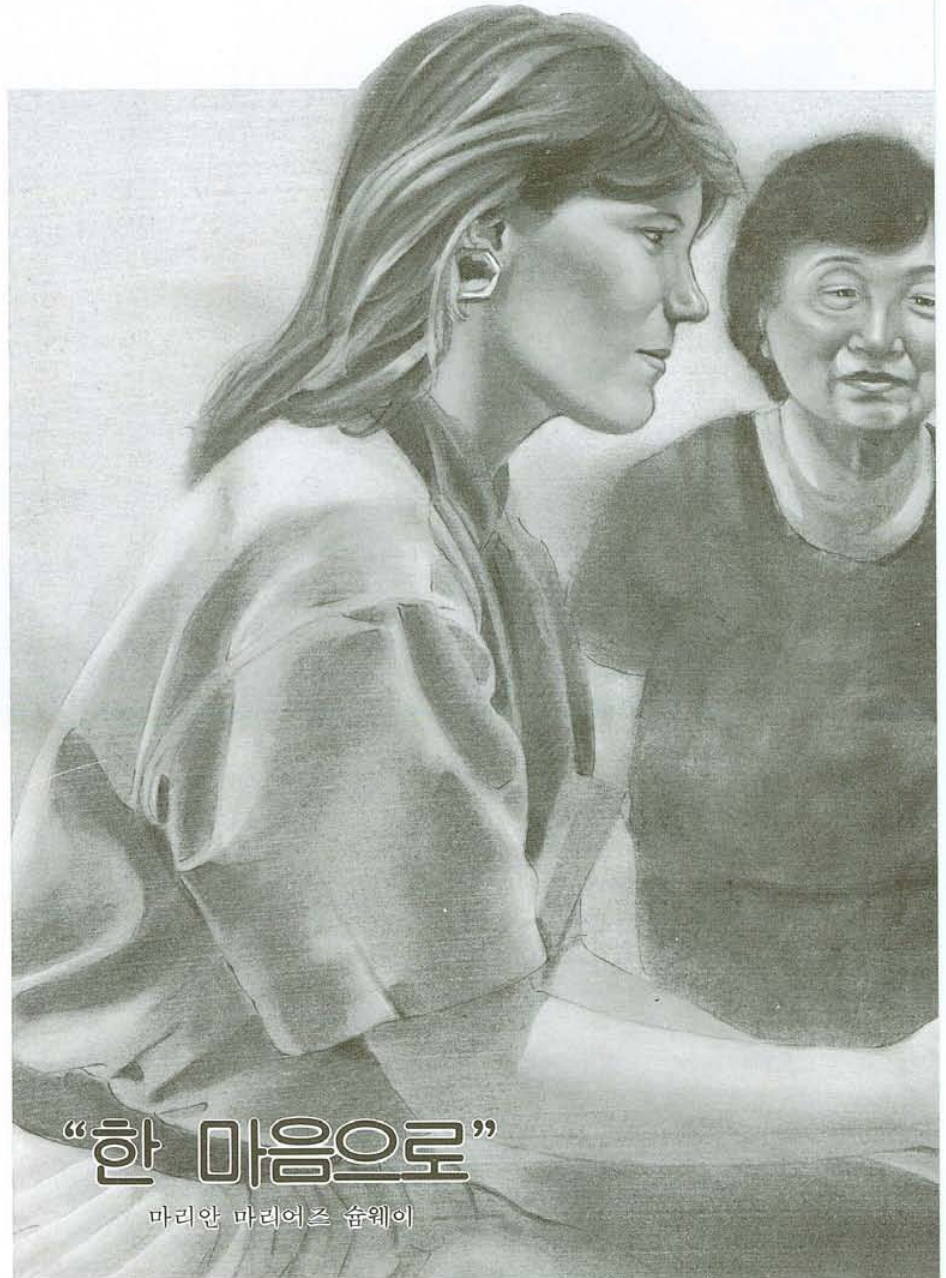
**왜** 주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지상에 그렇게 많은 문화와 전통과 철학이 퍼지게 하셨을까? 나는 가끔 언어와 역사가 이렇게 다르지 않다면 열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만에서 또 동남 아시아의 두 피난민 수용소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에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대만에 체류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어떤 중국 자매의 동반자가 되도록 지명받았다. 우리가 소개받았을 때 쉰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매님이 내가 적용하고 배울 수 있는 복음 원리를 많이 가르쳐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벅찼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처음에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굉장한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쉰 자매와 나는 나의 초보적인 중국어와 그녀의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가슴의 교류를 이룩하게 되었다. 마침내 어느 날 쉰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마이애즈 자매님은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며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녀가 동경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나는 그녀의 곁에 있었다. 쉰 자매는 내가 그녀의 선생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행 17:24,26)

선교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미국에 정착할 계획인 아시아 난민을 위하여 문화적인



## “한 마음으로”

마리안 마리어즈 슐웨이

오리엔테이션과 영어 수업을 해주는 기관과 함께 봉사했다. 이 경험은 나와 신앙이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 내 사고에 포함시키도록 내 시야를 넓혀 주었다.

가재 도구를 사용하고 청소하는 방법에 관한 수업을 한 다음 약간 남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통역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연습을 시켰다. 내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하게 되어 있었다. 한번은 젊은

통역사가 짜증이 나서 그 대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캄보디아 할머니에게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할머니의 입술이 떨리고 눈이 몇 번 찢룩이더니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통역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 여자의 실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구세주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야윈 손을 잡았다.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녀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자 옆에 앉았던 다른 세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동안 그 할머니는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것을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다른 세 여자도 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굶어죽은 이야기와 성글로 끌려 가서 살해당한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 모든 여성이 알고 있었던 것은 고난 뿐이었다. 교육을 받을 기회라고는 거의 없는 캄보디아 여성의 유일한 의무는 가정과

성도의 벗/1986년 12월호

가족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 세 여성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족이 그들의 눈앞에서 학살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리고는 통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나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며 여러분이 한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라는 것을 진심으로 압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주님께 여쭙기 위하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언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경전을 꺼내서 색인 편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었던 두 성구가 이때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시온에 대하여는 너희 마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성 101 : 16) 또 더 잘 알려진 성구가 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 7 : 18)

영이 내 영혼에 부어내려졌다. 나의 학생들과 나는 언어나 신앙에 있어서 공통점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이 여인들과 세상적인 소유에 있어서는 가난하지만 순수성과 온유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풍요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그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배움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이 복음이 이 지상에 결는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의 백성에게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에 대하여 더 이상 의아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에는 복음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경계선을 초월한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거룩한 십일조의 법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해의 왕국의 율법의 일부

**십** 일조의 법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으려할 때 지켜야 하는 해의 왕국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무릇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어떠한 왕국에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교성 88 : 22, 38~39)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성 105 : 5)

더 높은 의식을 받기 위한 선결 요건

십일조 헌금은 우리가 신권의 더 높은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주님의 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아내와 인봉되어야 합니다. 십일조는 사람이 이 더 높은 복음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적인 표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고 삼 개월 밖에 안 되었을 때 나부 성전이 건설 중이었는데 브리감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서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엄격하고 굳건하고 정규적으로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집으로 나아 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길을 걸으십시오.”(교회 정사 7 : 282)

닷새 후 어떤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테일러 장로에게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이 십일조를 내지 않은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십일조, 즉 소득의 십분지 일을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십일조를 내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작은 일을 해낼 충분한 신앙이 없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정사, 7 : 292~93)

십일조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세금 방식

제임스 이 탈매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일조란 주님께 바치는 세금이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이 십일조를 요구하신다. 이는 주님이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십일조의 법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목적은 수입을 얻기 위함보다는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수입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는 않다. 이는 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며 주님은 신앙으로 성결케 된 돈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내려질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와 같이 명하셨기 때문이다.”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487, 489 페이지)

신앙의 시험

십일조는 교회 회원의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큰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이 교회 회원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가 하나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시온의 땅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고,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원리 [십일조를 내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성실한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이 원리에는 커다란 중요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의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혹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처럼 필수적입니다. 만약 모든 율법을 지키되 한 가지를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바치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해도 자신의 힘, 물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 제시된 모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수천 배나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십일조의 법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증명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시온의 복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하나님 왕국의 현세적인 발전을 성취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의 축복과 의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게 해줄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02~3 페이지)

조지 큐 모리스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려면 신앙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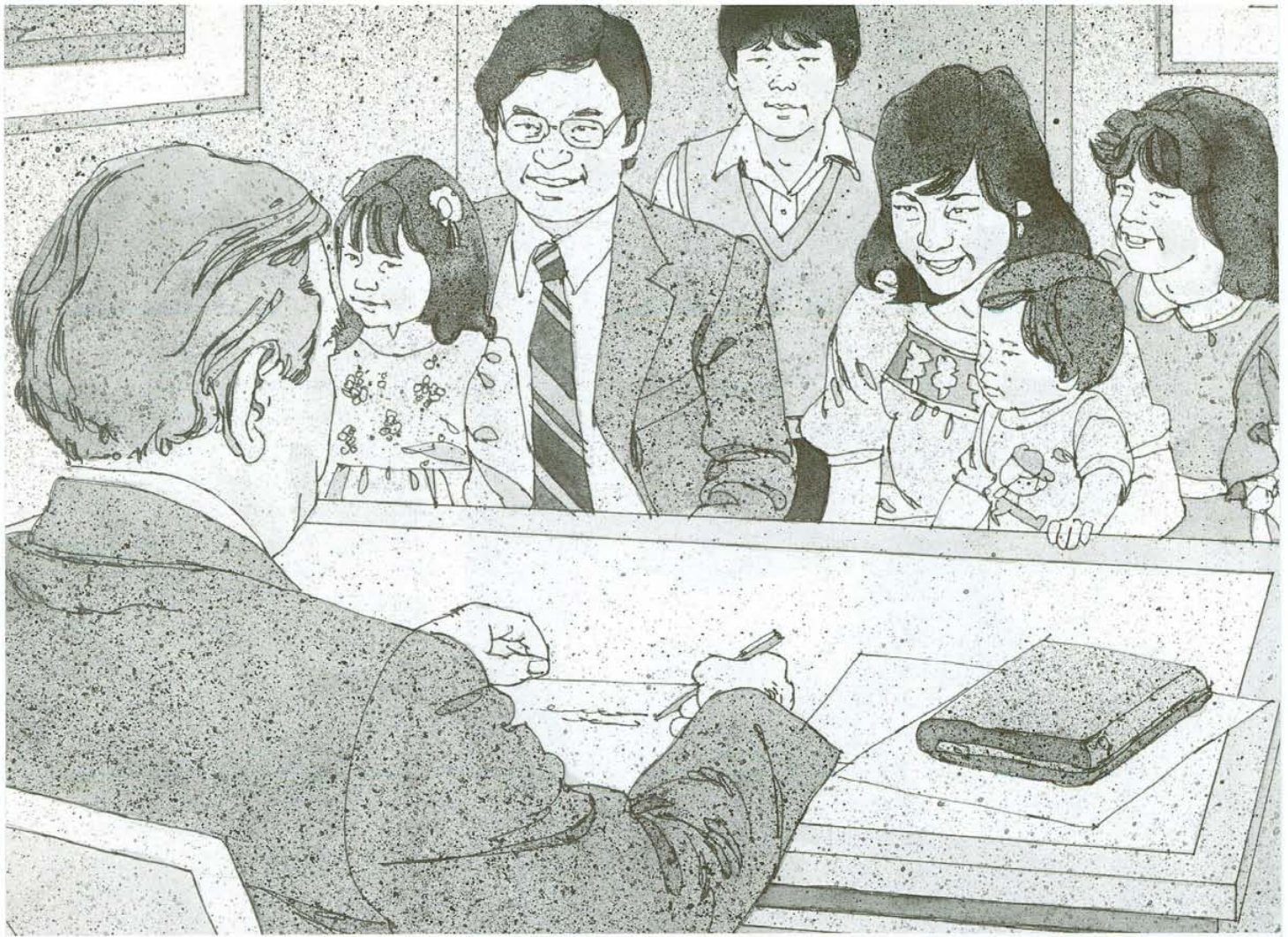
(사람들이 십일조를 낼 돈이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들이 십일조를 낼 충분한 신앙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의하여 십일조를 내는 것이지 돈에 의하여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서 십일조를 낼 금액이 많아지면 십일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십일조를 내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신앙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십일조를 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6월호, 435~36페이지)

또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너무 적고 신앙이 너무 적어서 역시 십일조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십일조를 내기에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일조를 안 낼 여유는 없습니다.

남미의 어떤 신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내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적었으나 그들의 신앙은 컸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또 서로에게



그들의 수입으로부터 우선 완전한  
 십일조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가구도 심지어는  
 책상이나 의자도 없는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성전까지 여행하는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십일조에 대하여 주님에게 약속드린  
 것과 성전으로 가겠다는 목적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 젊은이의  
 형님은 비회원이었는데 그들의  
 겸손한 신앙을 지켜 보았습니다.  
 어느날 그가 성역을 베푸는  
 천사처럼 그들이 꿈을 실현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두 장의 비행기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인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침례받았을 때 그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왔습니다. 그 형님은 그들의  
 모범과 그 자신의 회생으로 간증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의  
 회생이 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 준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말 3:10)

우리는 “그것으로 나(여호와)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정직한 십일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  
 탄원하며 이렇게 여쭙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백성이 십일조로서 그들 재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기  
 원하시는지 당신의 종에게 알려  
 주소서.”(교회 정사, 3:44)

1838년 7월 8일에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이 경륜의 시대에]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19:3~4)

십일조의 법이 교회 전체에  
 주어졌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십일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성명서는 주님 자신의



우리가 현금 계산에서 실수를 한다면  
주님에게 더 드리는 쪽으로 실수하도록 합시다.

성명서입니다. 즉 교회 회원은 '일년  
이익의 십분지 일'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익은  
수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대관장단  
서한, 1970년 3월 19일)

만일 우리가 십일조와 현금  
계산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면  
반드시 주님에게 더 드리는 쪽으로  
실수하도록 합시다.

조지 큐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직한 십일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정직한  
십일조를 낸 신앙을 지닌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실 수 있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조지 큐  
모리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6월호, 435~6페이지)

예언자가 왜 시온 진영이  
미주리주에 있는 성도들의 재산을  
성도들에게 다시 찾아줄 수  
없었는가에 대하여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미 구속함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피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옹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교성 105 : 2~4)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성도의 벗/1986년 12월호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만 하느니라.”(교성  
105 : 6)

#### 평등과 우정의 율법

십일조의 법에 관한 한 모든  
회원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회원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또  
그들의 수입이 아무리 많은 적든  
자신의 일년 소득의 10퍼센트만  
냅니다.

몇년 전 내가 지역 대표였을 때  
교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브렛포드에서  
다른 교회의 집회소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라파에서 수입해서  
화가들이 조립한 아름다운 채색  
유리에는 그것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삼나무가 멋진 수공예로 다듬어진  
설교단에는 그것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의 머릿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쪽의 좌석에는 그  
건축 기금에 가장 돈을 많이 낸  
유명한 가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일조의 법은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회원은 모두 어떤  
예배당에도 갈 수 있고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모두 갖습니다.  
주님은 모든 헌금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 십일조 처리

교리와 성약 120편은 교회  
전체에게 십일조의 법에 관한  
계시를 주신 바로 그날에  
주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십일조 처리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원(관리  
감독관)과 나의 고등 평의원  
[십이사도 정원회]으로 구성된  
회의로써...저들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해야 하느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십일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님께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을 인도하십니다. 이 평의회는  
십일조 처리에 관한 평의회라고  
합니다. (the Council on Disposition  
of the Tithes)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십일조 처리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어떤  
소년 시절의 친구에게 스테이크  
대회에 같이 가자고 권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재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그 친구가 스미스  
대관장에게 자기가 십일조를 내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가 일만불을 벌면 일천불을  
십일조로 은행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치있는 명분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수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일천불을 조금씩 조금씩 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좋은 일을 한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곳으로  
깎습니다.” 그리고는 스미스  
대관장에게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고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십일조를 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돈으로 당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당신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다른 사람에게 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의 십분의 일을 취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교회에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가장 좋은 동반자의 돈을 가져 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 일개월 후 길에서 만났으며 스미스 대관장은 그 친구가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7년 6월, 357 페이지)

십일조 결산

연말이 되면 모든 가족이 십일조 결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접견에서 그들은 완전한 십일조를 냈는지 보고하게 됩니다. 감독이나 지부장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한 것을 교회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고한 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은 그 개인과 주님만이 아십니다.

십일조 결산은 감독이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을 만나는 좋은 시간일 뿐 아니라 완전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에게 십일조의 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가족 전원이 십일조 결산에 참여하여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를 가르침

나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단지 몇십원이라도 십일조를 낼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그 금액이 현금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대 시절에는 가족의 예산에 보태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돈을 모두 옷이나, 유희이나, 자동차에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선교사업 기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젊은 남녀 회원을 접견해 왔습니다. 선교사가 교회로 오는 사람에게 자기가 한번도 지키지 않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그가 십일조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생활했다면 더 확신을 갖고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에서 받는 돈에 대하여서는 십일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교육을 받고 신혼 가족을 부양하는 압박을 받아서 십일조의 법에 대하여 개종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해지고 나면 자기가 번 그렇게 많은 돈에 대하여 십일조를 낼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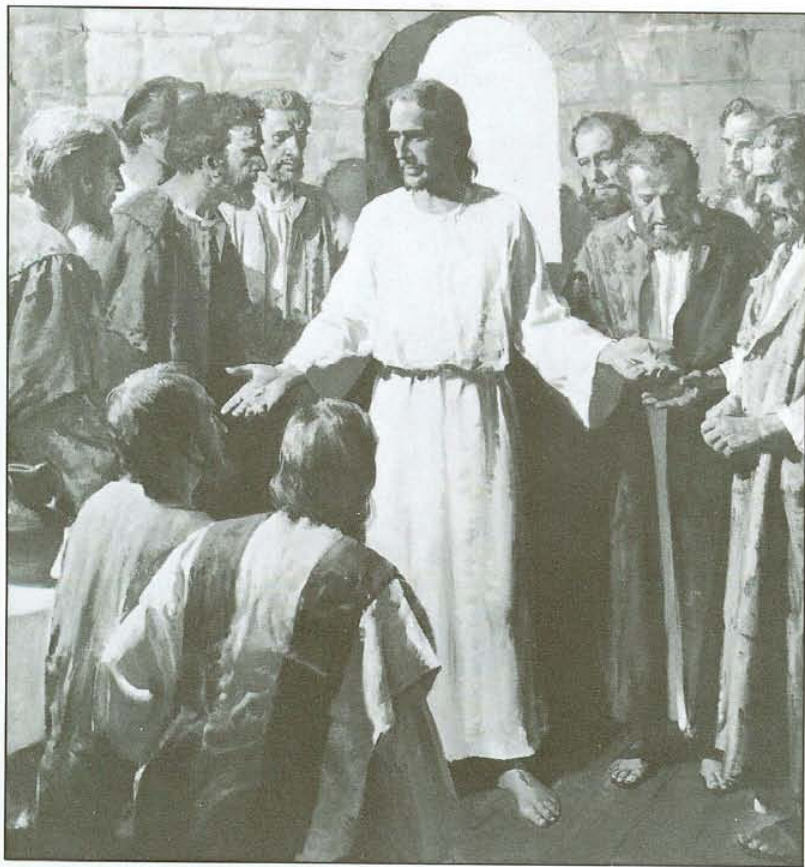
나는 선교부장으로서 선교사들은

누구나 선교 지역을 떠나면서 성전 추천서를 원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지역으로부터 귀환할 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려면 십일조의 법을 지키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넣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십일조의 법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금전을 모두 바치는 헌납의 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십일조를 낼 기회를 받지 못하고 최후의 안식처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모범에 의하여, 감독의 접견에서, 가정의 밤에서, 보조 조직 공과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찬식 모임에서,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토론에서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

우리는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우리 영혼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내려 주실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해리 앤더슨

# 예수님 생각하오니

토드 에이 브리쉬

십이세기에 시토 수도회의 성자인 버나드 오브 클레어복스는 그의 아름다운 예배 찬송가인 “예수님 생각하오니”에서 이렇게 적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기쁘네  
당신과 함께 거하면  
더욱 더 기쁘리

주님의 복된 그 이름  
보다도 기쁜 것  
노래로도 표현 못할  
인류의 구세주  
(찬송가 120장)

나는 몇년 전에 감독으로  
성임받고 어떤 대학 와드를  
감리하도록 성별받았다. 나는 그  
성도의 빛/1986년 12월호

직책에 따르는 권세와 열쇠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의 책임도 받았다. 맨 처음부터 이것이 이 부름에서 내가 가장 걱정하면서 접한 부분이었으나 곧 이것이 내가 가장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사로서 나는 교회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파문당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범법을 한 와드 회원의 고백을 듣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말하기 섭섭한 내용이지만 이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생겼다. 당시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학생들이 문제가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학생들에게 단 몇 가지 문제가 거듭해서 생길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바로 이 “거듭해서”가 나를 괴롭힌 문제였다. 수많은 와드 회원이 심각한 범법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온 이후로도 똑같은 범법을 반복했다.

죄를 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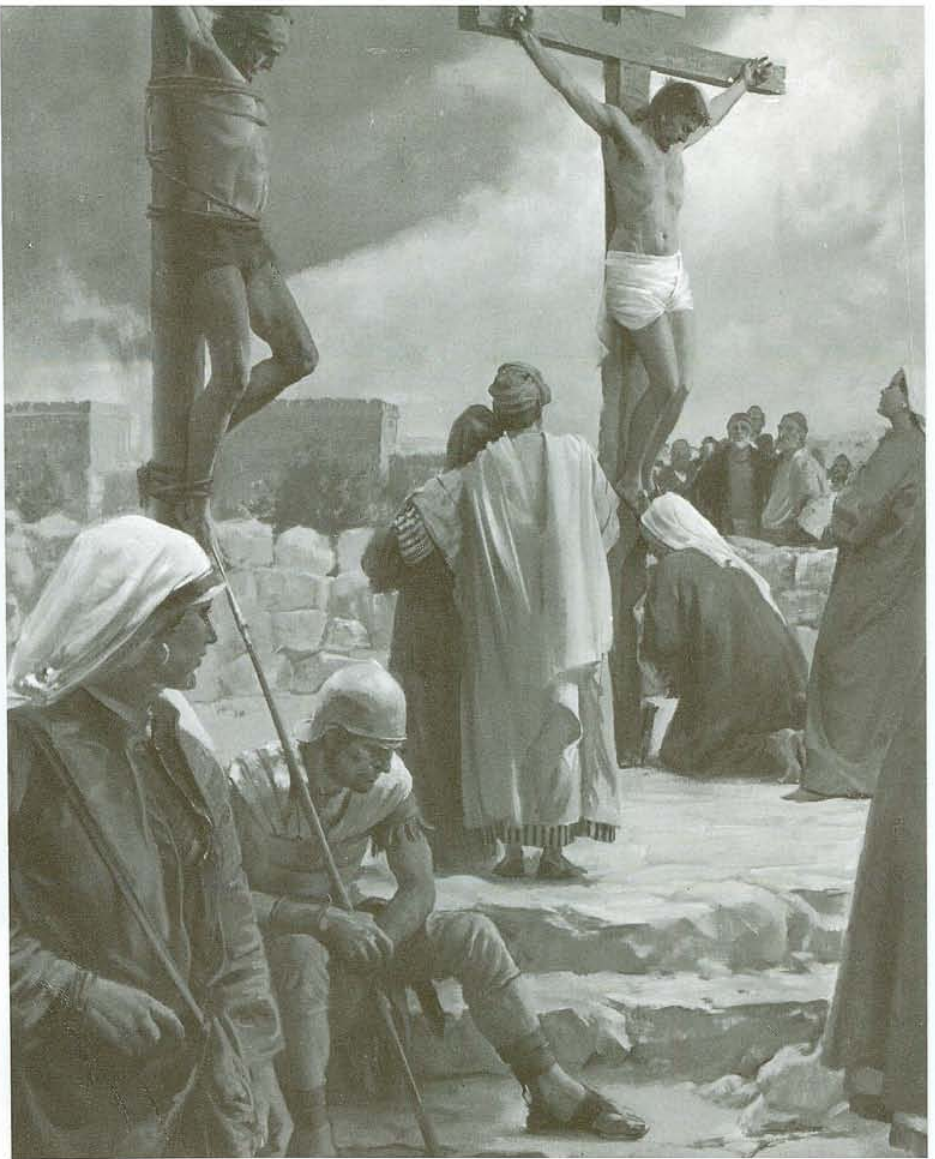
처음에는 이러한 일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런 학생들은 나에게 와서 자신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열의가 진실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고통과 비참함으로 괴로와하고 있었으며 접전이 끝날 무렵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자주 때로는 하루나 이틀 후에 그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짓고 더 큰 고통 속에서 다시 고백하러 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회개의 원리를 토론할 때 그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취해야 할 단계를 죽 열거할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이 진실되지만 그것이 변화로 이끌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고후 7:10)

나는 교회 새 회원과 신앙 개조를 살펴볼 때 보게 되는 단순한 문맥 안에서 마침내 나의 상담에서 잘못된 점을 찾게 되었다. 나는 복음의 첫째 원리를 다루기 전에 복음의 둘째 원리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전에 회개를 앞세웠던 것이다. 이것은 별로 굉장한 깨달음 같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와 내가 카운셀링 하고 있던 워드 회원에게는 극적인 발견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앞서지 않으면 회개는 죽은 또는 쓸모없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배후에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의 빛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그 빛을 짊어질 수 없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음



“십자가 형”. 해리 앤더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생활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신앙을 얻기 시작한다. 이 신앙은 우리에게 변화할 힘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도록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서 죄의 영향을 없애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결과로서 주님과 그의 자비를 믿은 이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를 찾는 지속적인 힘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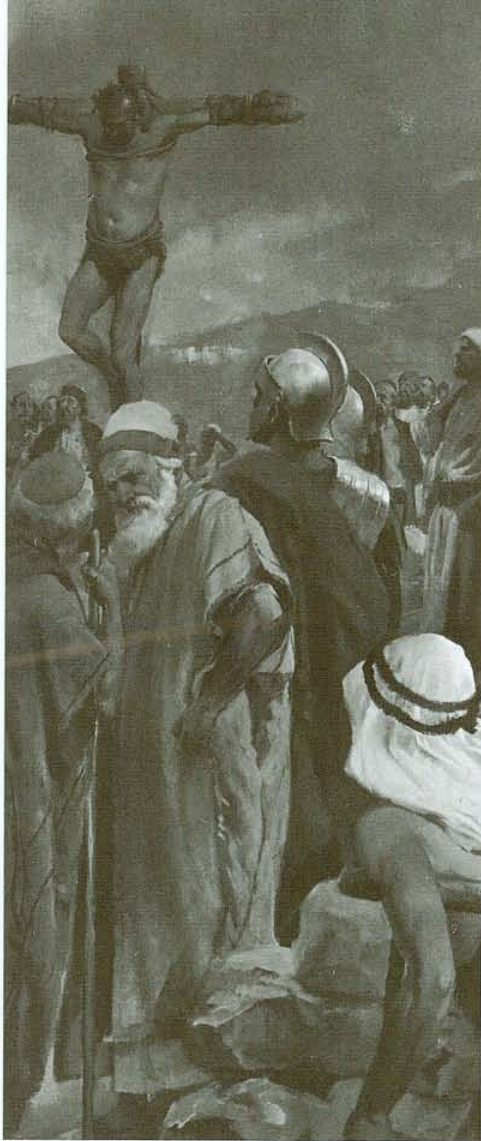
구속주를 배척함으로써 겪게 되는 고통을 알고 있었던 엘마 이세는 주님의 자비를 이렇게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없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

“영은 모든 것을 다 아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심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함이니, 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라.” (엘 7:12~13)

우리는 베냐민 왕의 백성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하여 회개하게 된 백성의 예를 보게 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육욕적인 상태를 보고 소리모아 이렇게



외쳤다.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이다.”(모 4:2)

#### 계속해서 선행함

그 이후로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탄해지며 죄사함을 받으며”(모 4:3) 성령이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그들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성도의 빛/1986년 12월호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었다.(모 5:2)

와드 회원들과 내가 빠뜨린 것은 주님에게 “궁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이룰지 못하는 세상의 근심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가 우리 가슴의 희망이 되신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그가 타락하는 자에게 친절하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이런 친절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순종하도록 격려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궁극적으로 죄인에게 울 처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의 범위를 적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

#### 범법은 고통의 행위임

어떤 친구가 한번은 교회 재판에서 어떤 범법한 사람의 경우에 “너무나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몹시 불평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내 생각에는 이 친구는 약이 정말로 즐겁다고 믿도록 피임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행하고 좀더 분명하게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 41:10)는 것을 잊고 범법 행위 자체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행위라는 것을 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속을 마련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나는 회개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모든 유혹이 끝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최후의 몇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한 것은 끝까지 견딜 힘을 줍소서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육신의 독생자이시며 그가 겿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과 그가 그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모든 죽는 사람의 부활을 가져오셨다는 것과 그가 우리 시대에 그의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 생활을 바꿀 실질적인 권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자신이 쓰디쓴 고통을 맛보고 있고 부정의 사슬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소망의 시작이다.

오 회개한 자의 소망  
은유한 자의 벗  
타락한 자에 친절코  
선하시나이다

참으로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구세주에 대한 생각이 소망과 기쁨과 회개할 힘을 가져다 준다.

토드 에이 브리쉬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인문학 교수이며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그의 와드에서 대제사 그룹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의 구원의 권세에 따라 그들의 범법을 닦아내기 위하여 육신으로 고통을 겪으셨다.(엘 7:13)\*

# 사랑은 생명임

바바라 비 스미스 전 본부 상호부조회장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생명은 불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생각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에는 체념과 정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명에 활기를 줍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산불처럼 번져 나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곳에 불멸의 특성이 태어납니다.

## 어떤 사랑의 이야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실제로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어떤 회사의 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는 어떤 노인의 옆에 앉게 되었는데 그는 부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마비 증세가 있었으므로 그가 부인의 고기를 잘라 주었고 먹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매우 부드럽고 자상했습니다. 그가 식사를 끝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참 잘 하시는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연애 시절과 그들이 함께 생애를 보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본 것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어떤 파티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것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긴 금발의 곱슬 머리에 예쁜 푸른색 허리띠를 두른 아름다운 흰색의 아일리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저 여자가 내가 결혼할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갔으며 귀환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과 약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독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으며 내가 불평하자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한다면 주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먼 여행을

사랑은  
생명이며  
생명은  
불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가 파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데이트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그 만찬회 이후로 그 부인은 공식 석상에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어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했으며 실제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종관리 역원으로서 정구적으로 성도들을 방문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대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집에 오면 그 대회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야기를 끝내고 아내를 놀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내 말에 대꾸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겠오.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아났으며 굉장히 노력하며 간신히 힘을 끌어모아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굉장히 느린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대단히 노력한 끝에 그 말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그녀의 불구가 된 육체적인 손상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들의 사랑을 가볍게 다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여성, 지나 카드 브라운의 장례식에서 모든 연사는 한결같이 애인이자 부대관장인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이 많은 부인이었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브라운 부대관장이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브라운 부대관장 부부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그들이 곧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그들을 불멸을 향하여 즉 영원의 시작을 향하여 이끌고 갔습니다.

## 가장 큰 계명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주에 스며들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힘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힘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길에 놓이는 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들어올려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성역 마지막 주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세번째 그를 찾아 왔습니다. 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 : 36~40)

이것은 어떤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것보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어떤 시기이나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이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그는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을 알든지 행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복음의 가장 심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요 13 : 35)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국제 관계의 세계에서 그렇게 자주 시도되지는 않았으며 국가 문제의 세계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팔복할 만한 일이 생각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디는 다른 쪽 뺨을 들이대고 악행에 대하여 선행으로 갚는 것이 그의 국민에게 위대한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힌두교도가 대단히 화가 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을 회교도인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보복하기 위하여 한 어린 회교도 소년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간디에게 위안을 구하러 왔습니다. 간디는 그에게 만일 그가 고아가 된 회교도 소년을 한 사람 찾아내서 자기 아들로 삼아 키우되 힌두교도가 아니라 회교도인으로 키운다면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 즉 불멸성을 가져다 주는 희생이 있습니다. 간디는 대단한 고통을 겪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객의 흉탄이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었다면 새 국가의 발전에 그가 더욱 큰 공헌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킴블 대관장의 모범

최근에 우리는 대관장을 지내셨고 우리가 사랑했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생애에서 많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교회 대관장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사랑이 그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타주 로간의 어떤 스테이크 부장이 방명록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책이 그의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아들은 책장을 넘기다가 그 책에 있는 서명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종관리 역원들이 그 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름 :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  
날짜 : 1954

직책 : 사도

퀴미 :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는 한참 더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 :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날짜 : 1964

직책 : 사도

퀴미 :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까지도 극복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웃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이 이웃 사람은 킴볼 대관장이 뜰에 있는 것만 보면 나가서 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웃 사람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킴볼 대관장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라고는 뜰에 계시는 때 뿐인데 당신이 나가서 귀찮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이웃 사람은 집 안에 머물러서 킴볼

대관장을 창문을 통하여 쳐다 보기만 했습니다.

몇 주 지나서 킴볼 대관장님이 그 이웃 사람집의 초인종을 누르고는 그에게 찜남비를 주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은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요즈음은 형제님이 한번도 나에게 와서 말을 걸지 않는군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슴에 가서 행하라고 속삭이시며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사랑에 찬 설명을 해 주신 분이 바로 킴볼 대관장이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주님이 바로 이 방식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인줄 아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이런 응답 방식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최근에 병약한 자매를 위하여 일년 이상이나 일용품 쇼핑을 모두 다 해 준 두 방문 교사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매일 혈압을 재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또 어떤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어떤 병든 자매의 남편이 집을 비우는 동안 그녀를 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자매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 자매는 병에 걸려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인공





호흡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목욕시켜 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이를 닦아주고 집을 청소해 주고 또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자매가 자기를 위하여 봉사해 준 사람들의 사랑과 인내에 대하여 울면서 감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생명을 갖게 하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혼에 생명을 주고 가족에게 생명을 주고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및 세계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불사불멸을 믿어야 합니다.

### 코리에 텐 붐

아마 여러분은 코리에 텐 붐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차대전 중 나치에 항거하는 지하 조직의 투사로서 영웅이 된 50세의 독신녀입니다. 사랑이 그녀의 생애에 어떻게 작용하여 그가 극도로 능욕당했을 때 선을 행하게 해주었는가 하는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살던 처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한 사랑에 빠져 들었으며 상대방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코리에를 그의 약혼자에게 소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 그녀가 이 위기에 맞서도록 돕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젊은 약혼자들이 떠나고 나자 코리에는 자기 침실로 달려 가 누워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발자욱 소리를 들었다. 잠시 동안 나는 아빠가 담요를 꼭꼭 덮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어린 소녀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어떤 담요로도 막을 수 없는 상처였으며 갑자기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무서워졌다...

물론 그분은 그릇된 말씀이나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코리에, 어떤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지 아니? 사랑이란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것이 좌절하면 고통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고통이 멈추도록 사랑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의 일부도 죽는다. 또 다른 방법은, 코리, 그 사랑이 여행할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도록 부탁드릴 수 있다...우리가 오래 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주실 수 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전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한 다음 그 나치 친위대 보조였던 사람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내가 라벤스브루크의 처리실의 샤워실 문에서 보초서던 그 전직 친위대 대원을 만난 것은 뮌헨에서 있었던 교회 모임에서였다. 그는 그 무거운 시기 이래로 실제로 우리의 간수였던 사람으로서는 맨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한방에 가득 찬 조롱하는 남자들, 수북히 쌓인 옷, 고통으로 새파랗게 질린 벤티(누이)의 얼굴—등 모든 것이 눈 앞에 나타났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가 환한 미소를 띄고 절을 하며 나에게 왔다. 프롤린,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가 악수하려고 내민 손이 내 앞에 나와 있었다. 블레멘달에서 사람들에게 용서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주 설교했던 나는 손을 울리지 않고 있었다.

“분노한 또 보복적인 생각까지 끊어오르는 동안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지켜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좀더

원하려는 것일까? 나는 주 예수님에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

“나는 미소지으려고 노력했다. 손을 올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느낌도 따듯함이나 사랑의 느낌은 눈썹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조용한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손을 잡자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나의 어깨로부터 팔을 거쳐서 손을 통하여 나로부터 전류가 그에게로 흐르는 것 같았다. 내 가슴 속으로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거의 나를 압도할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또 세상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에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의 용서에 달려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과 함께 사랑 그 자체를 주고 계신다.” (코리에 텐 붐, 은신처, 뉴욕, 뱀텀 출판사, 1971년 44~45, 238페이지)

사랑은 생명을 주는 힘으로써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불사불멸에 대한 열망을 가져다 주는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실제 그런 것처럼 사랑을 위대하고 강력한 힘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고 받는 기술을 통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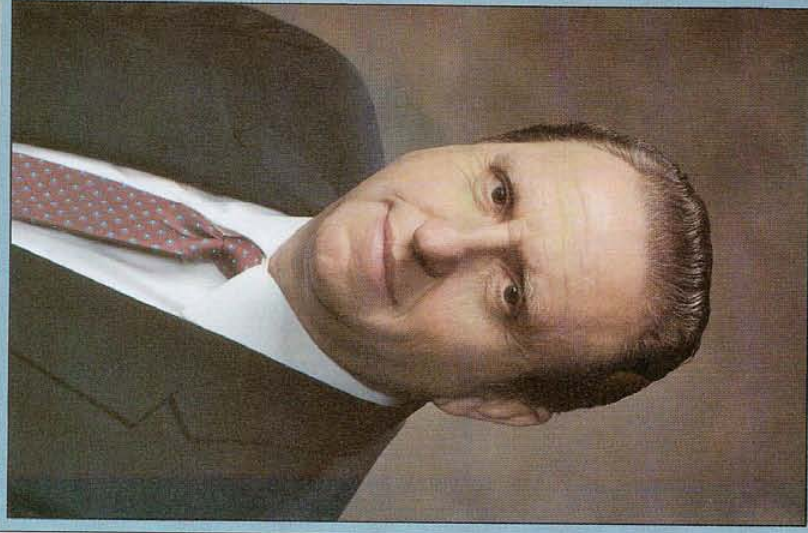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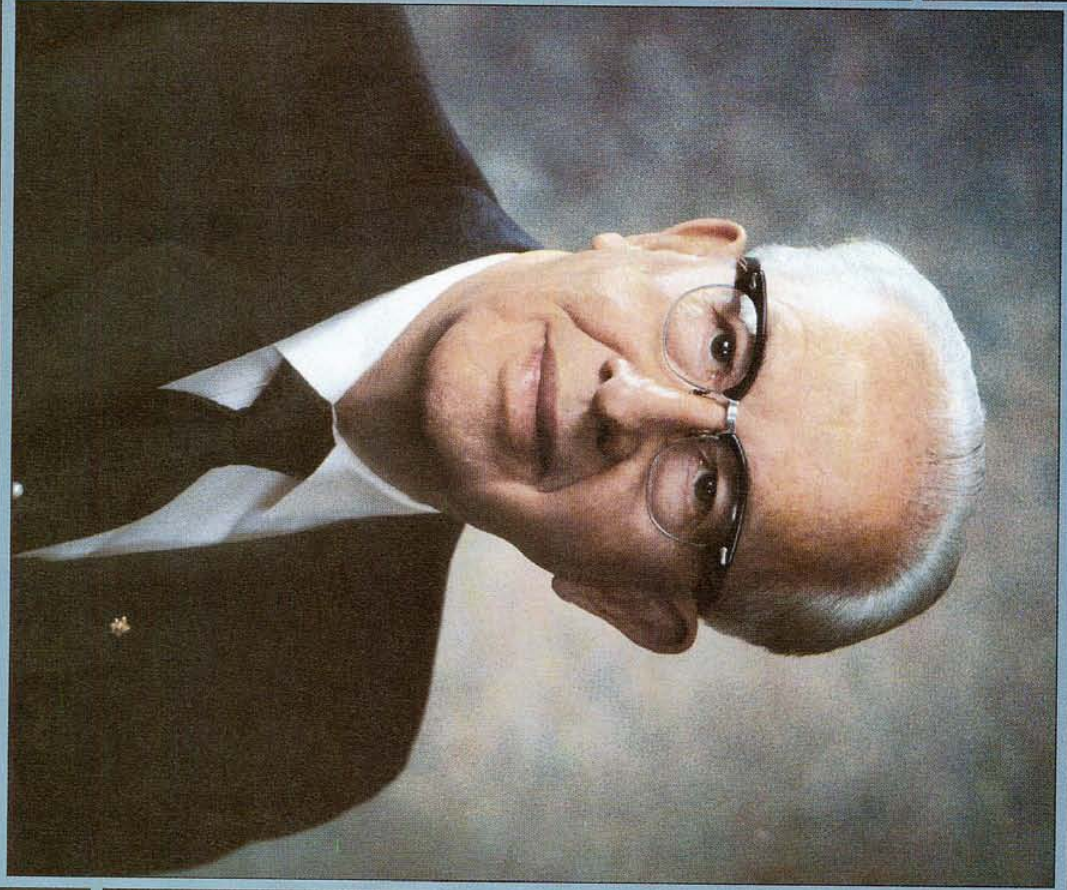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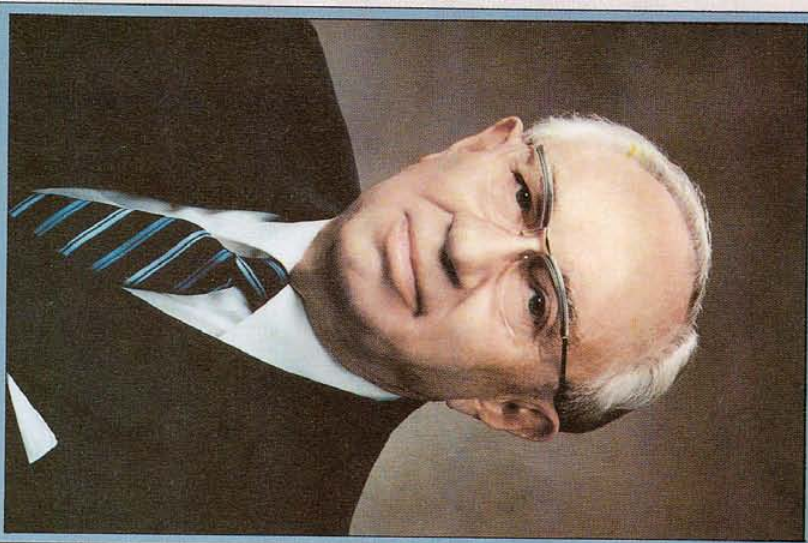
**“사랑은 생명이며 생명은 불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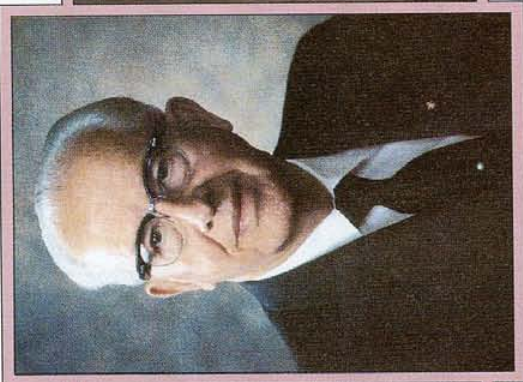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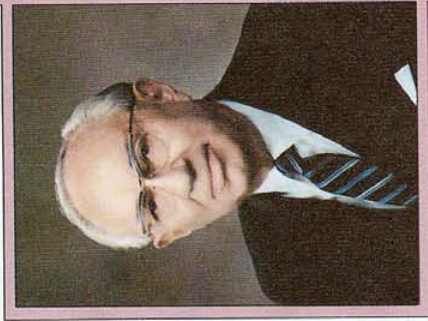


# 성도의 벗



1987년에는  
성도의 벗이 월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벗이 컬러로 인쇄됩니다.  
성도의 벗에 특별히 청소년란이 마련됩니다.  
성도의 벗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1**

- 1 2 3
- 4 5 6 7 8 9 10
- 11 12 13 14 15 16 17
- 18 19 20 21 22 23 24
- 25 26 27 28 29 30 31

**2**

-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 15 16 17 18 19 20 21
- 22 23 24 25 26 27 28

**3**

- 1 2 3 4 5 6 7
- 8 9 10 11 12 13 14
- 15 16 17 18 19 20 21
- 22 23 24 25 26 27 28
- 29 30 31

**4**

**5**

**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성도의 벗

“성도의 벗은 교회의 회원과 친구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가정에 성도의 벗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성도의 벗은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입니다.”

대관장단  
1986년 1월

지금 구독합시다!



“요셉도… 갈릴리에서…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거기 있을  
 그 때에…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 4~7)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헬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누가복음 2: 8~15)

# 퀘벡의 꿀과 아름다운 하머니

캐들린 루백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냄

젊은이들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나열하라고 한다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그 목록의 맨 꼭대기에 두고 그 다음에는 훌륭한 가족이 되는 것과 또 아마 교회의 부름을 수행하는 것을 열거할 것이다. 그러나 꿀통에서 꿀을 따는 것은 어떤가? 또는 노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의 퀘벡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말일성도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

## 모금 운동의 꿀

진하고 끈끈하고 황금색에 끈적끈적하고 단 꿀. 이것을 캐나다의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르미엘”이라고 한다. 푸른 수레 국화, 자색의 엉겅퀴, 섬세한 여러 가지 흰 꽃이 널려 있는 시골의 녹색 벌판에서 상자같이 생긴 꿀통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시골에서, 몬트리올로부터 50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생 브리기드 디베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옥수수밭, 전초 창고, 사일로를 볼 수 있다. 또 푸른 꿀통과 흰 꿀통에서 꿀을 따고 있는 십대의 말일성도 소년들을 보게 된다.

소년들은 하루 종일 꿀을 따서

처리하는 급료로 꿀을 한 양동이 받는다. 그것은 불편한 봉급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 그들은 르모안 와드의 다른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 그 꿀을 포장하고 팔아서 와싱턴시까지 여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모은다. 그곳은 자동차로 열 두 시간을 가는 거리다. 그들은 경치 구경이나 관광을 위하여 미국의 수도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것이다. 몬트리올은 와싱턴 성전 관할 구역에 속한다.

르모안 와드의 만14세된 새뮤엘 말티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말로 성전에 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성전에 가는 경비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꿀을 다루면 끈적거리고 일하면서 더러워지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알고나면 그것을 훨씬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꿀통과 벌을 다루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나?

이 일은 조셉 윌프레드 세르게스 리모게스 감독이 그의 와드 십대 청소년에게 성전 여행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리모게스 감독은 이렇게 회상한다.

“모두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꿀통과 관련된 일을 하는 와드 서기가 양봉업자인 마코트씨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꿀통을 다루는 일에 일손이 필요했다. 감독이 젊은이들과 접견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일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마코트씨는 와드에서 온 그 소년들에게 꿀을 따는 방법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크 웰체트는 이렇게 말한다. “벌을 다루는 일은 재미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쏘이는 것 뿐입니다.”

그 소년들이 꿀이 담긴 양동이를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 와드의 다른 젊은이들이 그 끈끈한 것을 작은 용기에 담은 작업을 도와 준다. 그리고는 그것을 친구들이나 몬트리올에서 교회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강 식품 가게 밖에서 고객에게 판다.

16세의 필립 카조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오늘 가게 밖에서 여섯 시간 동안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려면 그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가는 일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고대하는 행사이다. 15세의 소녀 로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교회를 소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행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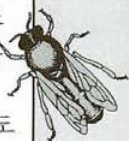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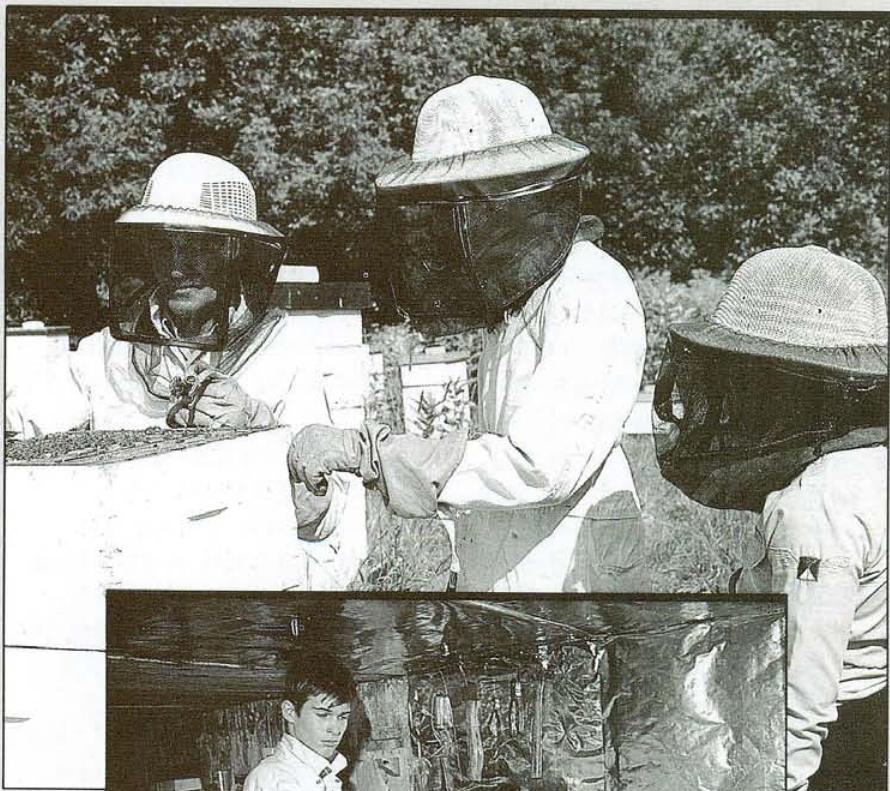
그들은 또 그 꿀을 사는 손님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심분 활용하고 있다. 17세의 프랭키 벨롯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스탠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전에 가기 위하여 모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전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줍니다.”

르모안 와드의 젊은이들은 기꺼이 일하려는 마음과 새로 배운 기술로 산 자와 죽은 자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훌륭한 보상을 경험하고 있다.

#### 노트르 샹송

소속 스테이크에서 “노래하는 르골 자매”로 알려진 16세의 산탈과 18세의 나탈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또 복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들의 스테이크 사람들은 아직도 산탈과 나탈리가 삼년 전에 스테이크를 위해서 발표한 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산탈이 말일성도 젊은이로 구성된



밴드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시작되었다. 나탈리도 그 그룹에 가입했다. 산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름 내내 하루에 다섯 시간씩 연습했으며 스테이크를 위하여 세 시간의 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쇼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나탈리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상당히 어릴 때 시작되었다. 10살이 되었을 때 노래 지휘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했으며 소속 와드의 음악 책임자에게 지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지금 그는 자기 와드에서 합창단장이며 청년 캠프 지휘자 및 주일학교 서기이다. 동생은 청년 음악을 지휘하며 와드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해당 청년 반장직도 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좋아서 노래하지만 산탈은 직업 가수가 되고 싶어한다. 나탈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산탈은 정말로 음악을 사랑합니다.”

작년에 산탈은 유명한 “축제” 콘서트에 나가기 위해 심사를 받았다. 그곳에는 기자들이 참석하여 몬트리올에서 가장 소질이 있는 신인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산탈은 심사에 합격해서 출연 스케줄까지 세웠다. 그러나 그 콘서트가 일요일에 열리는 것을 알았을 때 산탈은 그 콘서트에서 나왔다.

산탈은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축제에서 노래하고 싶었지만 영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내 앞길에 나타난 것을 압니다.”

이런 기회 가운데 하나는 작년에 교회가 제작한 세미나리 필름에서 노래하는 것이었다. 두 자매 모두 그 필름의 불어판 번역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산탈은 프로듀서에게 노래하고 싶다고

했으며 그리하여 그 프로젝트에서 몇 곡을 녹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산탈은 스튜디오로 가서 헤드폰을 쓰고 녹음 시간에 훌륭하게 해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어떤 기술자는 그녀에게 직업 가수로의 소질이 있다고 말해 주었으며 그것은 상당한 격려가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직업 가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노래하는 것을 선교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소녀는 몬트리올에서 학교에 다님으로써 특별한 시련을 겪는다. 1500명의 학생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들만 말일성도이다. 산탈은 이렇게 말한다.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이 우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 우리를 만나면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탈리도 동감이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정장하고 걷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는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나의 연감에 무언가를 적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작년에 복도에서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몰랐지만 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 네가 우리 반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선교 사업입니다.” 산탈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르골 가족은 십년 전 선교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집을 찾아 온 후에 교회에 가입했다. 나탈리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만 여덟살밖에 안 되었으나

교회가 참된지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것이 참된 줄 알았습니다. 친척들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된 줄 압니다. 이 교회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나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젊은이에게 자기 친구나 가족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매들은 복음이 없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고 있다. 나탈리는 이렇게 말한다. “때로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으며 주님의 영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열쇠이며 또 너무나 훌륭합니다.”

르골 가족은 모두 영과 가까이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르골 형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어느날 고속도로에서 휘발유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차를 돌려 주유소에서 멈추라는 영감을 받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젊은이가 여행하다가 지쳐서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르골 형제는 그 젊은이의 오토바이를 자기 차에 싣고 그 젊은이를 몬트리올까지 태워 주었다.

그 젊은이는 그런 친절에 감명을 받고 르골 가족에 대하여, 또 어떻게 해서 그 가족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좀더 알고 싶어하였다. 그는 선교사 토론을 공부했다. 르골 가족은 그 젊은이가 간증을 연도록 기도하였다. 그는 몇 주 후에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다.

산탈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가족 활동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젊은이가 진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니다.”

나탈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편집자 주: 꿈을 모아서 과는 사업으로 인하여 르모안 와드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하는 르골 자매에게도 음악이 똑같은 목적을 달성했다.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지부나 지방부)의 젊은이들이 단체로나 개인적으로 복음과 관련된 어떤 사업 또는 활동에 종사한 적이 있나? “캐백의 꿈과 아름다운 음악”과 비슷한 기사를 환영한다.

보낼 곳: *Articles*

*Editor,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 S. A.*

기사를 타자쳐서 보내주기 바란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기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흑백 사진이나 천연색 사진을 동봉한다.



# 영혼의 가치가 심히 큼

폴 비 서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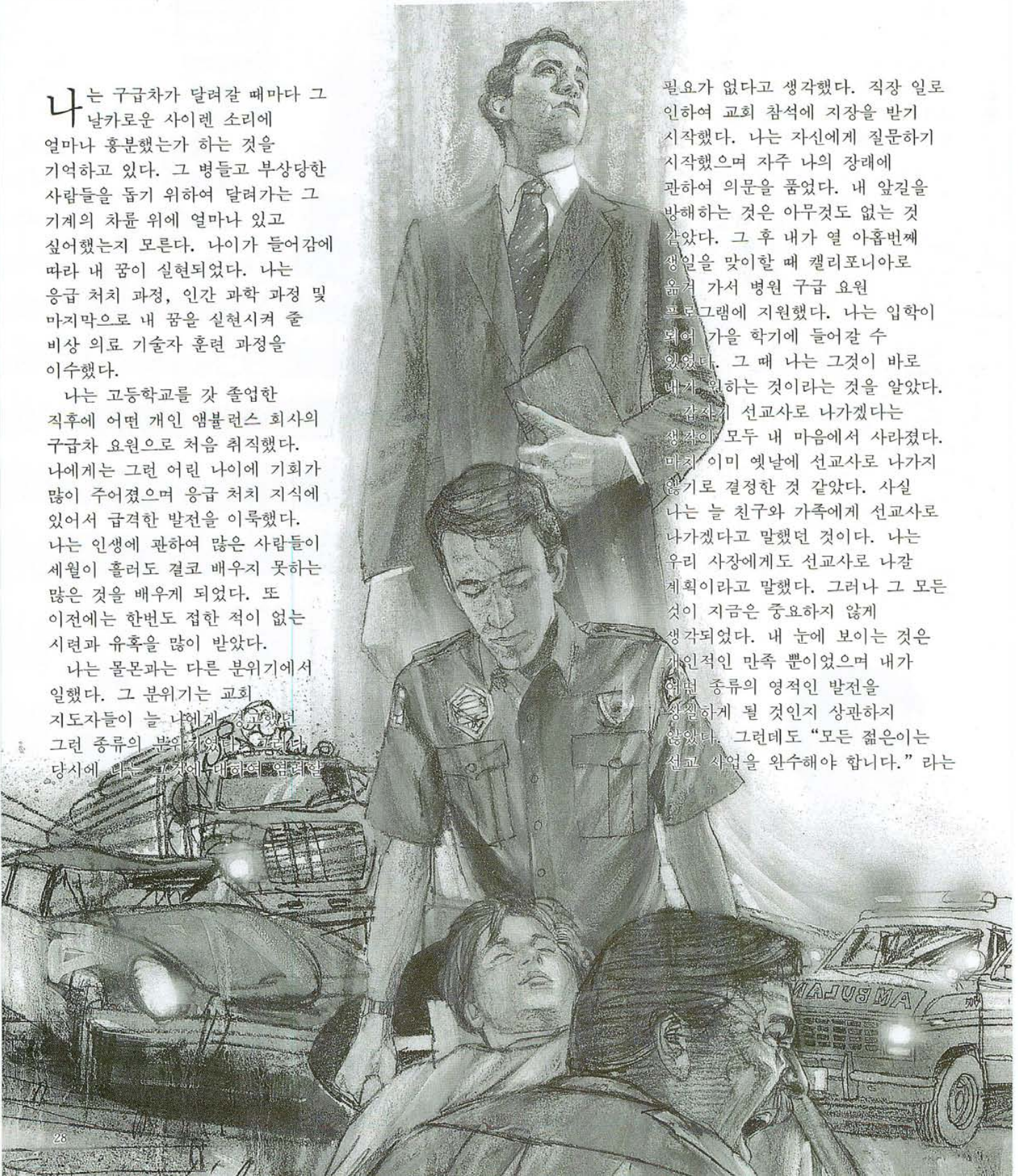
나는 구급차가 달려갈 때마다 그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얼마나 흥분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기계의 차륜 위에 얼마나 있고 싶어했는지 모른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꿈이 실현되었다. 나는 응급 처치 과정, 인간 과학 과정 및 마지막으로 내 꿈을 실현시켜 줄 비상 의료 기술자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직후에 어떤 개인 앰블런스 회사의 구급차 요원으로 처음 취직했다. 나에게서는 그런 어린 나이에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며 응급 처치 지식에 있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다. 나는 인생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또 이전에는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시련과 유혹을 많이 받았다.

나는 물론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일했다. 그 분위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늘 나에게 경고했던 그런 종류의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당시에 나는 그 것이 내 하직 이유였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직장 일로 인하여 교회 참석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으며 자주 나의 장래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다.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 후 내가 열 아홉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 캘리포니아로 옮겨 가서 병원 구급 요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나는 입학이 되어 가을 학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때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모두 내 마음에서 사라졌다. 마치 이미 옛날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늘 친구와 가족에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우리 사장에게도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 뿐이었으며 내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든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원수해야 합니다.” 라는



예언자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년이라는 기간에 내가 구급 요원으로서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곤했다.

나는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 선교사로 나갈까 말까 하는 결정이 언제까지나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했다. 우리는 24시간 교대 근무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자리에 들자마자 전화 벨 소리에 잠이 깨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의 교통 사고를 처리할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으며 나는 곧 두 자동차의 충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소형 자동차가 나무 울타리 기둥을 실은 큰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 찌그러진 차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최근에 결혼한 젊은 신혼 부부였다. 운전하던 남편은 즉사했다. 부인은 중상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 아홉살 된 여인의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이 훌륭한 부부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그들의 미래의 계획과 행복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곧 그녀의 심한 머리 부상에 대하여 특수 치료를 할 수 있는 스펀슬레이크사리의 병원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나는 그 무서운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정을 찾게 되자 그 피해자 친족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는 고속도로 순찰 대원과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굳은 표정과 그가 차를 몰고 갈 때 눈물로 눈이 흐려지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얼마나 끔찍한 임무인가 하고 생각했다. 만일 통보받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육신의 상태로 이 지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세주에게 보고할 때 내 얼굴 표정이 어떨까?

늦서리가 내린 가운데 밤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야경을 응시하면서 하늘이 얼마나 맑고 고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 뺨에 눈물이 줄줄 흘렀으며 나는 그 젊은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시도록 주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실제로 내 가슴이 사랑과 동정으로 아련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생각되던 그 순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의사, 간호원, 구급 요원도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치료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더 깊은 상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제신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할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분 밖에 없으며 나는 그분을 돕는 사람이 될 기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한 가지 결정을 했다. 나는 가장 위대한 병고치는 분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리라. 선교사로 나가리라. 나의 죄통과 응답되었음  
여의 날이 오고 갔다. 마침내 일개원 후 지론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젊은 여인은

완패해서 퇴원했다. 그 응답에 대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단계인 선교사로 일이 닦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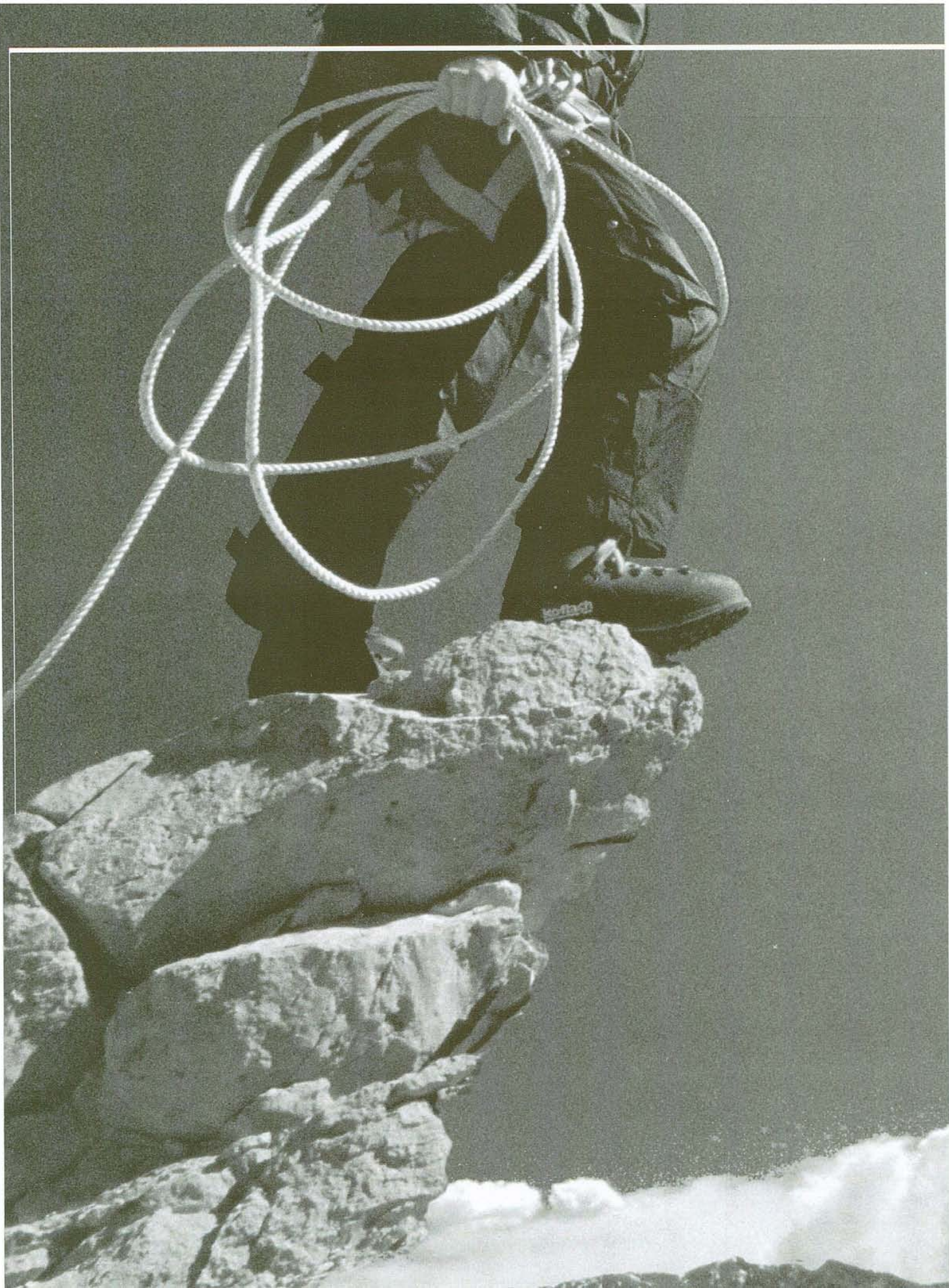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동안 영이 내가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나는 우리 스테이크 축복사가 축복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그 평온하고 아늑한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온 편지를 개봉할 때의 그 똑같은 느낌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봉사할 때에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특별한 평온한 느낌을 지녔다.

나는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걸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때의 느낌처럼 훌륭한 느낌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은 옳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게 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도록 도와 주었다는 것보다 더 훌륭한 느낌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구급차로 달리면서도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사실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



성도의 벗/1986년 12월호



# 절벽 걷기

에스 올라니 듀런

얼마 전에 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을 한장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등산가가 웅장한 알프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이 제곱 위 사방으로 천길이나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 등산가는 매우 높고 가파른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나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높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이가 8미터만 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등산가는 그곳에서 거의 말가락이 가장자리 끝으로 빠져 나오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동안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위험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는 사실상 죽음과 맞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절벽을 걷는 사람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벽 꼭대기에 담장을 칠 수도 있고 그 밑에 앰블런스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방식은 추락을 방지할 것입니다. 둘째 방식은 추락의 결과를 고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올타리를 세우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험에 따르는 스틸을 좋아하여 절벽을 걷는 사람에게는 올타리가 그런 경험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 절벽과 이 생에서의 유혹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등산가가 점점 더 가장자리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절벽에서 보이는 경지처럼 사탄의 술수는 그까 주의깊게 준비한 쿠렁팅이의 가장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유혹해 잡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여행하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가 절벽의 가장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유혹해 가려고 애씁니다.

그는 우리에게 절벽 너머로 들여다 볼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많거나 대담하거나 마보스럽다면 그 가장자리의 끝까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쇠막대기를 잡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해서 손가락 끝으로 잔잔히 절벽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비명소리도 못내고 그 가장자리 너머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즉 우리가 위험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또는 너무나 확신하여 가장자리에서 뒤뚱거리는 동인은 그런 일은 스틸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서는 술, 담배, 마약, 부나 권력에 대한 욕망, 부정직, 탐욕 등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는 너무나 영리합니다. 그는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음  
나에게는 젊은 시절에 술을

거절할 수 없었던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 그에게는 특별한 독이었습니다. 그는 알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으며 그는 이 병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일을 해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도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번 다시 얻을 수 없는 모든 그의 젊은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긴 세월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의 음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가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단 들이서 데이트할 때 올바른 문행을 지키기 어려웠던 어떤 젊은 남자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순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차츰차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데이트는 결국에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두 사람만 있게 되어 말하자면 절벽의 가장자리를 걷는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극복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행동에 반부해서 빠져 들었습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애무가 밝은 태낮에 세운 조용한 계획보다 더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절벽의 끝까지 걸어간 다음 곧 되돌아 오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녀는 그들이 행동을 바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으므로 그들의 데이트를 완전히 종식시킴으로써 마침내 절벽 너머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나는 십년 동안 감독과 고등 평의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여러번 교회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는 회원 자격에 관한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절벽 가장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울타리는 혹시 그들이 세웠다고 할지라도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자리 너머로 넘어질 때까지 사탄의 꼭조에 맞춰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는 모두 시험과 시련을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에 다시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유혹을 이기고 높은 곳에서 우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했는지는 몰라도 버림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전의 안내와 살아계신 예언자 및 다른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훈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의 손에 침례받은 사람에게서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에베소인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훌륭한 충고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과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1, 13~18)

부모모써 나는 자녀가 절벽 가장자리에 그들 자신의 울타리를 짓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막중한 과제와 책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성공에 대한 희망과 실패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내게 분명합니다.

나는 “보통” 말일성도 가족을 거느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그런 생각때문에 고생합니다. 아내와 내가 안식일에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에 집에 올 것을 요구하면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일찍 집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 회원의 평균 통계를 보면 젊은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말일성도 젊은이는 평균해서 50퍼센트가 성전에서 결혼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세 명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선교 사업을 나가고 다른 두 사람은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고문으로 봉사하는 제사 정원회 회원인 제프일까요? 내가 코우치로 있는 팀의 선수인 데니스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앤디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선교 사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더 갖추고 있는 아들이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통”이 되도록 예언자의 말씀에 등을 돌릴 두 사람은 세명 중에서 누가 되어야 합니까? 어느 두 아들이 선교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할지 혹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네 딸 중에서 어느 두 아이가 성전의 제단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로라와 리니타일까요? 우리 음악가인 제닌은 어떤가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는 어린 백일까요? 어느 두 아이가 자격이 없고 관심이 없고 불충실하다고 선언할까요?

나는 “보통” 말일성도 가정을 거느린다는 생각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일성도의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얻을, 또 여러분이 얻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사탄의 가장 큰 도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과 내가 보통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 것 같기 때문에 거짓말도 조금 하고 속이는 것도 조금 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도 조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니파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잡니다. (니이 28:21)

사탄은 실제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이 큰 권세를 느끼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했으며 이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와 과오를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주신다는 것도 또 나의 간증입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준비하도록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면 그 힘이 필요합니다. \*

1984년 7월 4일 브리감 영 대학교의 예배 모임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 그 어리신 예수

경건하게 ♩ = 60-80

William J. Kirkpatrick

1. 그 어 리 신 예 수 누 울 자 리 없 어  
 2. 가 축 소 리 날 때 그 아 기 잠 깨 나  
 3. 주 예 수 여 내 결 에 거 하 소 서

귀 하 신 몸 이 구 유 에 누 워 있 네  
 은 유 하 신 마 음 으 로 울 지 않 네  
 사 랑 으 로 영 원 히 거 하 소 서

하 늘 에 별 들 은 구 유 를 비 추 고  
 사 랑 하 는 주 님 나 를 굽 어 보 사  
 사 랑 하 는 어 린 이 축 복 하 사

그 어 리 신 예 수 폴 위 에 자 네  
 새 벽 까 지 내 결 에 거 하 소 서  
 하 나 님 과 함 께 살 게 합 소 서

작사 : 작자 미상, 약 1883년. 필라델피아

작곡 : 윌리엄 제이 커크패트릭, 1838~1921 : 로잘리 엘서가 화음을 붙였음.  
 1925년 출생. © 1980년 로잘리 엘서. 허락을 받아 편곡을 사용함.  
 1회용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락받음.

이 관권은 각 악보마다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누가 복음 2 : 7

13 : 15~17

# 몰몬경에 있는 성탄절 이야기



패트 그래햄

**유의사항 :** 이 프로그램은 성탄절기에 가족과 함께 발표할 수 있다. 가족 몇 사람이 낭독자가 된다. 무대 의상을 입게 해도 좋고 또는 어른이 그 인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어도 좋다.

역할을 지명하고 빈 칸에 각 낭독자의 이름을 그의 역할 옆에 적는다. 역할을 여러 부 복사하여 모든 사람이 친철히 감정을 넣어 읽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자기 가족이 이 성탄절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음악과 노래를 선택한다. 음악을 인도할 사람과 노래를 연주할 사람을 지명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노래를 연습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지도자 여러분의 책임이다.

**노래 :** “십이월”(다 함께 노래를 F-9)

**어린 아이 :**

십이월에 내가 제일 좋은 것은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우리가 아기와 별의 이야기를 읽을 때입니다.

**해설자 :**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모두

성경에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낯익은 이야기를 읽기를 좋아합니다.

**해설자 :**

몰몬경도 예수의 탄생과 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양 대륙의 사람들이 모두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노래 :** “아름다운 구주”(다 함께 노래를, B-6)

**해설자 :**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미대륙으로 여행을 떠난 몇년 후에 그의 아들 니파이가 나사렛 도시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한 아름다운 동정녀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 :**

또한 내가 눈을 들어 큰 성 예루살렘과 여러 다른 성읍들을 보았고 나사렛 성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으니 지극히 희고 아름다우더라.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봄에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니일 11 : 13, 20~21]

**해설자 :**

나중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먼인들도 레이먼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이멘인 사무엘 :

보라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리니, 오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을 구하시러 오시리니,

보라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그가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저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둡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을 것이요,

또한 보라,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돋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히 14 : 2~3, 5]

노래 : “오 베들레헴 작은 골”(찬송가 124장) 1절.

해설자 :

많은 니파이인들이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메시지를 다 전할 때까지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이라헤물라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정말로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았습니다. 힐라멘의 손자인 니파이는 그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 그 사악한 불신자들은 사무엘이 예언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기도했으며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 [니삼 1 : 13]

해설자 :

그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물몬이 니파이의 큰 판으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봅시다. 니파이에게 이르신 말씀이 그 이르신 대로 성취되었으니, 보라 해는 지나 어둠이 덮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은 밤이 어둡지 아니하며 놀라더라.

말씀대로 새로운 별이 나타났느니라.”[니삼 1 : 15, 21]

노래 :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제 2 절.

어린 아이 :

나는 성탄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세주-예수 그리스도, 왕을 좋아합니다.

노래 : “낮은 구유에 나신 주”(다 함께 노래를, F-12). (가족이 노래 부르는 동안 한 소녀가 마리아처럼 옷을 입고 인형을 안고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다.)

해설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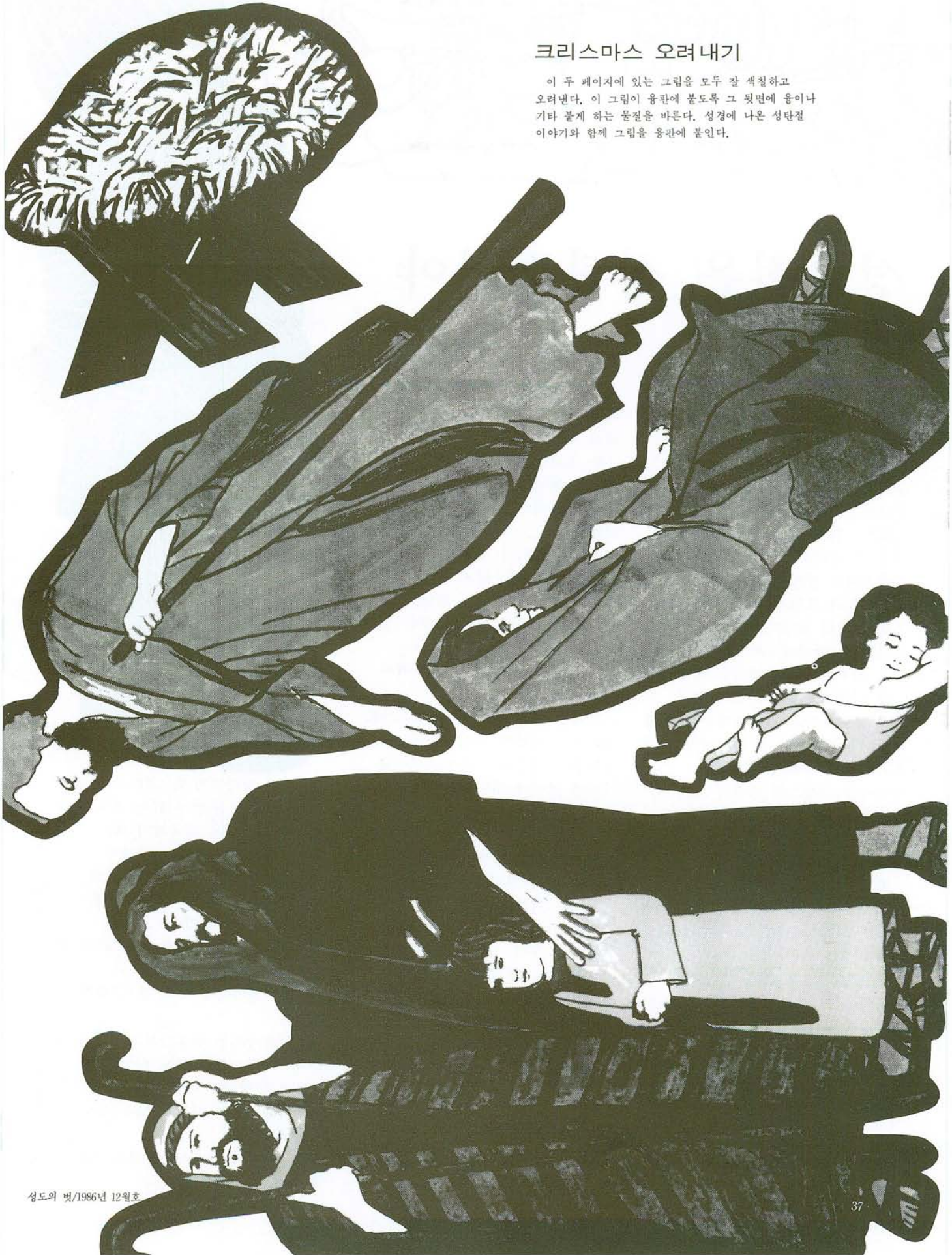
그 별이 돋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대륙의 충실한 사람들이 모두 그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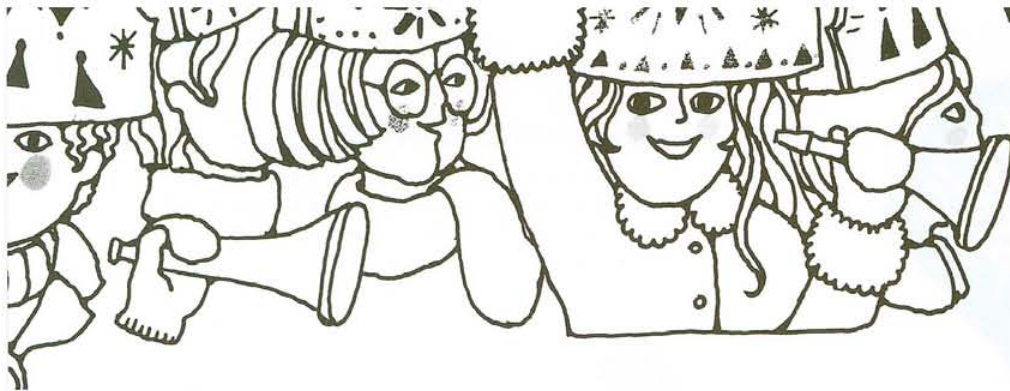
노래 : “크리스마스 종들”(다 함께 노래를, F-13) 및 또는 “주 믿는 신도여”(찬송가, 170장).



## 크리스마스 오려내기

이 두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모두 잘 색칠하고  
오려낸다. 이 그림이 용판에 붙도록 그 뒷면에 용이나  
기타 붙게 하는 물질을 바른다. 성경에 나온 성탄절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용판에 붙인다.





# 성탄절은 성탄절이야

세리 존슨

**프**랑소아즈는 그녀의 친구인 힐다가 성 니콜라스 퍼레이드에서 행진하는 것을 아무 말없이 지켜 보았다. 힐다는 별과 눈보라를 새겨 넣은 커다란 주교관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다. 힐다는 큰 뿔피리를 갖고 자주 큰 소리로 불었다. 힐다는 프랑소아즈 옆을 지나면서 손을 흔들었으나 프랑소아즈는 같이 손을 흔들어 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힐다와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얼굴을 찌푸렸다.

성 니콜라스 퍼레이드가 끝날 무렵 프랑소아즈의 마음에는 불쾌한 생각이 스쳐갔다. 왜 아버지가 이곳 스위스로 오셔야 한담? 왜 아버지가 프랑스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탄절을 경축하지 않고 있어.

힐다는 프랑소아즈를 만나기 위해 달려 왔다. 그리고는 독일어로 매우 빠르게 이렇게 외쳤다. “재미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던? 너도 내가 만들어준 모자를 쓰고 우리와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할 걸 그랬어.”

프랑소아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힐다는 이렇게 말했다. “넌 퍼레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니?”

프랑소아즈는 “프랑스에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경축하지 않아.”라고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이곳 스위스에서 어떻게 경축하는지 네가 보기를 바랬어.”

두 소녀는 버스 정거장까지 말없이 걸어갔다. 힐다는 그녀의 큰 모자와 뿔피리를 벤치 위에 놓고 앉았다.

마침내 힐다가 프랑소아즈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프랑스말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탄절을 경축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은 것이 좋아. 우리 나라에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부터 온 여러 가지 풍습이 많이 있어.”

프랑소아즈는 힐다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집부렸다. “나는 성탄절을 경축하는 방식은 단 한 가지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우리 방식이 제일 좋아. 성 니콜라스에 관한 이 행사는 모두 틀렸어. 선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크리스트킨들리야.”

힐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의 집에는 그가 선물을 가져다 줄 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성 니콜라스야.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야. 성탄절은 성탄절이야.”

곧 큰 회색 버스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멈추었고 두 소녀는 버스를 탔다. 집으로 가는 동안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으나 프랑소아즈의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이 스쳐갔다. 힐다가 “성탄절은 성탄절이야”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일까? 물론



성탄절은 성탄절이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늘 우리가 했던 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경축해야 해.

프랑소아즈는 집에 도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서 그 꼭대기에 있는 크리스트킨들리를 물끄러미 쳐다 보았다. 그리고 “성탄절은 이렇게 지내야 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 음성이 들렸다.

프랑소아즈는 뒤돌아보고 어머니가 문에 게시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 엄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성탄절이 이래야 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혼자 성탄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힐다는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크리스트킨들리가 아니라 성 니콜라스가 온대요. 그들은 선물을 열면서 성탄절 시를 낭송하지 않아요. 그리고...어쨌든 그들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잘못한다고?”라고 물으셨다.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프랑스의 집에 있을 때 하던 방식대로 성탄절을 보내야 해요”라고 프랑소아즈는 고집부렸다.

어머니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러나 프랑소아즈야, 우리는 프랑스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 집은 이곳이야. 우리는 스위스 사람이야. 그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 보면 우리는 과거에 프랑스에서 하던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크리스트킨들리도 프랑스 말이 아니란다. 스위스 사람 가운데 성탄절에 자기 집에 크리스트킨들리가 온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다.”

프랑소아즈는 당황했다. 그녀는 한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방식이 옛날 프랑스에서 하던 방식과는 다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방식이 옳고 힐다의 방식이 틀리지?”

프랑소아즈는 대답을 시작했으나 할 말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에 큰 응어리가 생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했으나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프랑소아즈는 이렇게 불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축하해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다시 프랑소아즈는 대답할 수

성도의 빛/1986년 12월호

없었다. 그녀는 단지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으쓱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프랑소아즈를 부드럽게 도닥거리 주시면서 “성탄절은 사랑의 시기가 되어야 하며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녀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혼자 두고 나가셨다.

프랑소아즈는 어쩌면 힐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려 프랑소아즈가 문으로 나갔다. 그러나 프랑소아즈가 문을 열었을 때 밖에 아무도 없었다. 계단 위에는 맛있는 성탄절 과자인 트리젤이 가득 들어 있는 예쁜 색칠을 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트리젤 사이에 자그만 푸른색 카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인으로부터!”

프랑소아즈는 사방을 둘러 보았으나 그 과자를 두고 간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어머니가 “누구니?”라고 물으셨다.

프랑소아즈는 “트리젤 한 상자 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그것 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 과자인데,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힐다일꺼예요.”

“참 착하기도 하지” 어머니는 그 과자를 맛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프랑소아즈는 미소짓고 싶었으나 미소가 나오지 않았다. 그 퍼레이드에서 또 집으로 오면서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생각했다. 힐다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준 모자를 쓰고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슬프게 해 준 것이 틀림없었다.

그 순간 프랑소아즈는 어머니께서 성탄절은 사랑을 보이는 시기라는 것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생각났다. 힐다가 노력해 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프랑소아즈는 천천히 과자를

맛보았다. 참 맛있었다.

“맛 있어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아직 프랑스에 있었다면 트리젤을 한 번도 못 먹어 보았을꺼야. 그리고 너에게도 힐다같은 친구가 절대 안 생겼을꺼야.”

프랑소아즈는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그 동안 이기적이었으며 지금 기분이 언짢았다. 힐다는 “성탄절은 성탄절이야”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소아즈는 그 과자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프랑소아즈는 “나는 성탄절을 올바른 방식으로 경축할꺼야”라고 결심하고 서둘러서 자기 방으로 갔다.

그녀는 색연필과 종이를 꺼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탄절 시를 적었다. 그리고는 시의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리고 두꺼운 색종이로 깨끗하게 테를 둘렀다.

그녀의 다리로는 할 수 있는 것만큼 빨리 힐다의 집에 도착할 수 없었으나 곧 힐다의 정문을 두드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힐다가 문에 나왔을 때 프랑소아즈는 그 시를 건네 주었다.

프랑소아즈는 이렇게 말했다. “트리젤 고마워. 이것은 우리의 성탄절 전통에서 나온 거야. 우리는 선물을 교환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성탄절 시를 읽는단다. 만일 우리가 트리젤,

크리스트킨들리, 성 니콜라스, 시, 퍼레이드를 모두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스위스 전통을 갖게 될거야.”

힐다가 웃었다. “어쨌든 성탄절은 성탄절이니까.”

프랑소아즈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나도 알아. 성탄절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의 것이 아니야. 성탄절은 성탄절이야. 또 어디에 있든지 성탄절은 사랑이야.”

\*



좌로부터, 제 1보좌 아곱 디야가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 윌리암 알 브래드포드 장로, 제 2보좌 조지 아이 케넌 장로

## 아시아 지역 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 소속감의 은사

이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타산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염원하고 찾는 것은 평안과 만족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물질적인 선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만족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 온 성탄절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지난 성탄절의 영과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오는 평안과 만족의 느낌에 쫓리게 됩니다.

이러한 영은 여러 면으로 나타납니다. 단합과 함께 하는 느낌을 통해서 또는 따뜻한 미소와 악수와 인사를 나누거나, 웃음, 음악을 통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귀기울여 듣는 고요하고 경건한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것은 형제애와 소속감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찾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부와 권세를 지니고 있었던 아데네 사람들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아는 데서만 맛보게 되는 소속감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바울은 이레오바고에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었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사도행전 17:23~28)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를 경축할 때, 알지 못하며 위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아데네 사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와 같이 잘못되기 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헛되게















제69기 선교사 일동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69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69기(1986년 8월 18~22일)를 수료한 15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각각 봉사 중이다.

팔호 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다음—

김 영기 장로(진주 와드)—서울 서 선교부

김 담운 장로(마포 와드)—서울 서 선교부

최 성주 장로(농성 와드)—서울 선교부

이 승후 장로(진주 와드)—서울 선교부

배 중호 장로(삼성 와드)—부산 선교부

장 권태 장로(충장 와드)—서울 서 선교부

이 영백 장로(부천 와드)—부산 선교부

김 환진 장로(충장 와드)—서울 서 선교부

고 광림 장로(용두 와드)—대전 선교부

김 준식 장로(노량진 와드)—부산 선교부

김 석화 자매(신촌 와드)—부산 선교부

김 행욱 자매(목포 와드)—서울 선교부

오 금실 자매(봉천 와드)—부산 선교부

조 호숙 자매(화곡 와드)—부산 선교부

박 윤수 장로(중앙 와드)—부산 선교부\*



## 이 은경 자매 작품 전시회

화가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분교 학생인 이 은경 자매가 하와이 대학 한국관에서 10월 31일까지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서울 여자 대학교와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도예술과 동양화를 전공한 이 자매는 한국-하와이 미술 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작품 전시하게 되었다.

일반에게 공개된 이 전시회에 이 자매는 "정원 1", "정원 2" 및 "침묵" 세 작품을 전시하였다. 정원화들은 주로 새들과 물 위에 뜬

연잎이 있는 동양적인 정원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자매는 이런 정적인 정면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흥학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롭고 약간 수줍은 듯한 한국 사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 자매는 언젠가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와 주제들을 동양적 화법으로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그리스도, 창조 및 그 이상의 것과 같은 가능한 화제를 말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면목와드 출신이며 서울 서 스테이크 시흥 와드의 최 경환 형제와 결혼하여

이번 학기에 둘째 아이를 분만할 예정인 이 자매는 하와이 성전에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작품 한 점을 하와이 성전에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

